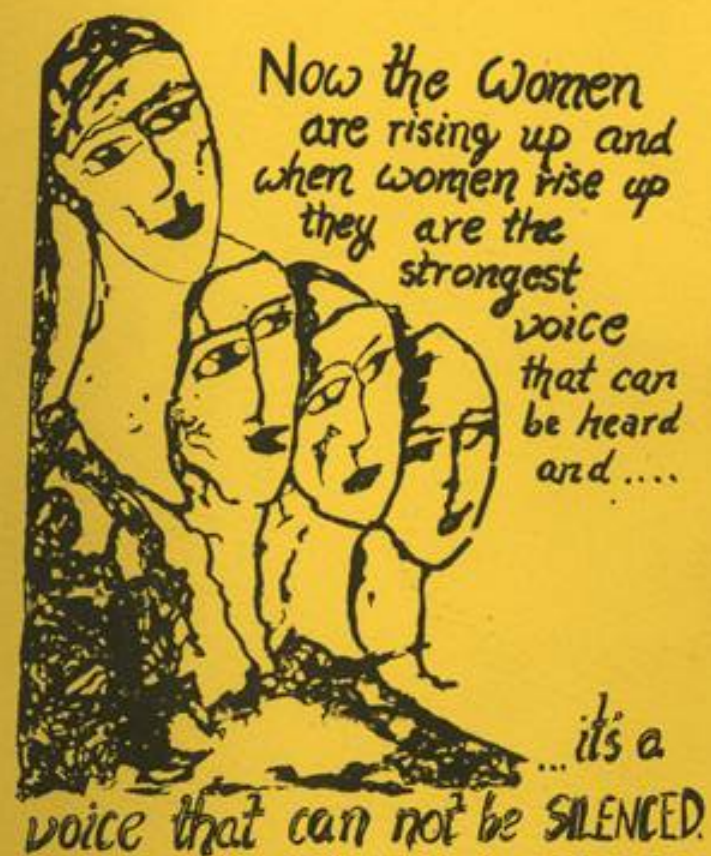


새로운 여성학이론의 모색과

여성학강의 개설을 위한 페미니즘 학교

무엇이 세상을 바꾸는가 페미니즘!



상대

주최: 7대 고려대학교 여학생위원회

후원: 32대 민족고대 총학생회/12대 대학원 총학생회

차례

10월 10일

1. 여학생위원회 위원장 인사. (1)
2. 대학원 중학생회 연대사.(3)
3. 중학생회 연대사.(4)
4. 여성이라는 정치적 주제로 서자. -여성화학회 건설의 활성화를 위하여,(5)
5. 여문연 함께 합시다.(13)
6. 섹슈얼리티 강연안(14)
7. 노동 강연안(42)
8. 차이의 페미니즘 강연안(51)
9. 여성문화공간에 대한 남성문화의 침탈! 고대생에 의한 집단적 성폭력, 이대대동제에서.(73)

무엇이

세상을

대학에 부는 페미니즘, 바람인가, 폐려다임의 변화인가?

90년대 들어 각대학마다 성, 여성에 대한 강의가 우후죽순처럼 등장하게 되었다. 물론, 마치 잘 팔리는 상품처럼 배치되기도 하고, 페미니즘에 대한 이해보다는 단순히 '여성', '성'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강의들이 많았지만, '여성학'의 학문적 기반을 충실히 하며 나름의 독자적인 영역을 쌓고자 한 전문적인 여성학 강의들이 개설되기도 하였다. 요즘 추세를 보면, 이화여대 여성학과를 중심으로 여성학의 전문적인 연구와 여성학자를 배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연대와 서울대에서도 여성학 전문 연구센터를 마련하여 학문 내에서 여성학을 정식적인 이론으로 흡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고대의 페미니즘? 우리는 불만이 많다!

고대에서도 최근들어 '여성'과 관련한 강의들이 계속적으로 개설되고 있으며, 다양한 학문의 영역에서 - 심리학, 법학, 사회학, 의학... - '여성'의 범주를 특수화시킨 연구들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고대의 페미니즘(?)은 내용물은 없고, 표지만 요란한 '상품' 같다. 대부분의 강의들이 페미니즘을 언급하고 있으나, 페미니즘에 대한 전문적이고 학문적 고민이 부재하고, 선생님들 또한 여성학을 전공한 분이 아니라 사회학, 심리학을 전공하고 그러한 기존 학문의 영역에서 단순히 '여성'을 분리시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고대의 페미니즘 계열의 강의들을 굳이 말을 만들어 지칭한다면 '유사 페미니즘(?)' - '사이비 페미니즘?' - 이라고 해야 할까?

교육환경권을 주장한다.

7대 여학생위원회에서는 졸업, 학내에서 여성들의 교육환경권을 주장해왔다. 이번 페미니즘 학교의 기획은 학내에서 전문적인 '여성학' 교육에 대한 권리의 측면에서 준비되었다. 많은 대학에서 여성학과가 개설되고 있고, 전문적인 여성연구소가 생기기도 하고, 여성학을 전공한 강사들에 의한 여성학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 때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이정도 수준 이나라는 평범한 불만이기도 하지만, 고대의 학풍과 관련지어 생각해볼 때, 청얼거림 정도의 요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한 사회의 민주화의 수준을 가늠할 때, 그 사회의 여성의 위치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한다. 고대의 여성관련 강의들의 수준에서 고대라는 공동체의 개방성, 민주성을 파악할 수 있다고 말하면 지나친 비약일까? 계속적으로 고대문화의 남성중심적이고, 집단주의적인 성격들이 지적되어 왔다. 또한 학문의 풍토 자체가 폐쇄적이고, 보수적이라는 말들이 있어왔다.

바꾸는가?

학내에서 전문적인 '여성학 강의의 개설'을 요구하는 이유는, 또한 그것을 교육환경권의 개념으로 설정하게 된 것은 고대의 문화, 학문 풍토와의 연결을 통해서였다. 여성학의 경우, 학문의 특성상 실천을 담보로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에서 여성학 강의가 개설되는 것만으로, 그래서 여성학 강의의 입지가 학생사회, 교수사회, 대학 본부측으로 그 파장을 넓혀간다면, 고대문화의 색다른 발전적 전회가 가능하지 않을까?

5. 섹슈얼리티, 노동, 차이의 페미니즘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새로운 여성학 이론의 모색과 여성학 강의의 개설을 위한 페미니즘 학교'를 준비하게 되었다. 페미니즘 학교는 3차례에 걸쳐서 진행된다. 섹슈얼리티, 노동, 차이의 페미니즘의 주제에서 각각 간으로 진행된다.

섹슈얼리티 강의는 여성학에 있어서 기본적인 분석개념인 SEX, GENDER, SEXUALITY 개념을 해체하고, 우리사회 성문화가 어떻게 정체체성을 만들어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다. 여성과 노동 강의는 현 구조조정과정에서 위협받고 있는 여성노동권의 문제를 제기하고 여성실업대책을 중심으로 여성과 노동의 관계를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다소 낯선 '차이의 페미니즘'은 최근에 등장한 페미니즘 조류로서, 현재 대부분의 연구영역에서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여성학의 새로운 이론을 모색하기 위해 준비된 강의이며, 이 기회를 통해서 여성학의 새로운 흐름들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이 세계를 바꾸는가?

말로만 들어본 '페미니즘', 이제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장이 되었으면 한다. '페미니즘'이 가질 수 밖에 없는 실천적인 함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직접 페미니즘 학교에서 찾아보았으면 한다. 그리고, 혹시 달라진 '내'가 느껴진다면, '무엇이 세상을 바꾸는가? 페미니즘'이라는 이번 페미니즘 학교의 컨셉을 기억해달라. 조금은 오만한 자신감을 넣어, 다시금 질문한다. 무엇이 세상을 바꾸는가? 무엇이 고대를 바꾸는가?

페/미/니/즘

7대 고려대학교 여학생위원회 위원장 송근이

연 대 사

우리 사회는 여성이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지키면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기에는 척박한
사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오늘의 한국사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리해고의 우선 순위는

어김없이 여성일 수 밖에 없으며, 여성의 권리는 신성함을 가장한

'어머니'라는 명명의 회오리 속에, 그리고 그 천박함마저 수면 위로

어김없이 드러내는 자본주의적 성적 상품화 속에서 여지없이 유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여성과 남성이 진정으로 동등하고 차별 없는 관계로 자리매김하
는 기획은 바로 우리시대의 임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침 제7대 여학생위원회에서는 여
성학과 관련한 강의를 여러 강연자분들을 모시고 진행합니다. 이번의 강의를 통하여 좀더
발전적인 여성관을 정립하고 남성과 여성이 이 사회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동반자로서 이
바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직도 남근숭배주의가 지배하는 고대 내
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고대가 이러한 조류에 선도적 역할을 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고대 내를 너머 여성의 권리찾기에 매진하시는 여학생위원회 제우들의 건투를 빌며, 부디
금번 강연회도 내실 있는 행사로서 마무리되었으면 합니다.

□□□제 12대 대학원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김준형

하늘의 반쪽, 여성. 평등한 세상을 위하여

우리 사회의 가장 밑에는 여성노동자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짓밟히고 찢기는 우리 민중들의 삶속
에서, 그 중에도 가장 큰 탄압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여성노동자, 농민입니다. 성의 구분이라
는 것이 하등의 문제가 될 이유가 없는데도 가장 오랜 시간동안 숨죽이고 살아온 것입니다. 이것
은 진보적인 세력들, 우리 사회의 변혁과 진보를 염원하는 사람들에게게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손쉬운 진리, 평등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은 하늘의 반쪽인 여성들에게까지 마
찬가지일진대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에서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일이 그리 쉽지 않은 것 같
습니다.

여성운동이라는 말만으로도 쓸데없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럴수록 차분하고 진지한
걸음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대는 유난히 여성에 대한 많은 오해와 편견이 쌓인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집단적인 문화가 뿌리내려서인지, 여학생들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 부족한 문화들도
또한 많았다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척박한 고대안에서 한걸음씩 꾸준히 여성운동의 발걸음을 옮
겨온 여학생위원회의 많은 활동에 새삼 경외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어디 다르겠습니까. 모든 이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여
학생위원회의 실천이 또 한걸음 내딛습니다. 이번에 열리는 페미니즘 학교는 진정 세상을 바꾸
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좀 더 풍부한 사고를 열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페
미니즘 학교의 앞장 하나하나의 강의들이 고대에서도 자랑스럽고 당당한 페미니스트들의 실천을
일구는 바탕이 될 것입니다. 오랜 시간 노력하고 준비했을 여학생위원회에 박수를 보내며, 언젠
나 평등한 세상을 일구는 그 걸음에 함께 하려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부분 부족했다고 생각합니
다만 총학생회 역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민중과 함께 승리하는 32대 민족고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이강현

부총학생회장 송범근.

여성이라는 정치적 주제로 여자.

--고대내 여성학 학회 건설의 활발한 움직임을 모색하며.--

고대내에서 많은 여성학학회들이 건설되었다. 사라졌다. 하지만, 지금도 여러 여성학학회들이 건설되고 있다. 그 만큼 여성학학회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여성학 학회를 건설하는 것과 어울어지는 것, 그리고 유지하는 것이라 생각보다 힘들다는 것이다.

하나의 학회는 단순히 세미나와 여론의 습득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공동 실천의 장이기도,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기도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있다 해도 많은 노력과 행동이 필요한 것이다.

1. 여성학 학회의 의미!

여성, 자신의 삶을 고민하는 공간이다.

여성학 학회는 바로 자신의 삶을 고민하는 곳이다. 나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나를 둘러싼 주변의 환경들을 관찰한다. 나는 나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지, 가족안에서 어떻게 자라왔는지, 학교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기대되어졌던 것들은 어떤 것들이었는지, 이성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자신이 생각하는 자기 스스로는 어떤 성격이며 사회에서 여성성으로 불려지는 것들에 가까운지 혹은 상반되는 성격인지를 발견해 봄으로써, 사회안에서의 나를 바라볼 수 있다.

이러한 고민들을 함께 말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생각했던 문제들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알게된다. 여성이라는 공통성하에서 비슷한 사회화 과정을 거치게 되었음을 알게되고, 내가 생각했던 나의 개성이 사회적으로 모든 여성에게 주입되었던 것임을 보고 자못 놀라게 된다.

이렇게 여성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강요당하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끄집어내고, 그 목록을 정리하며, 그 관계를 밝혀보았을 때, 여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라는 것이 거대한 여성을 억압하

는 체제에 의해 작동된다는 사실을 추론해 낼 수 있다.

이러한 눈으로 다시 세상을 보았을 적에, 무엇이 보일까? 자못 여성학학회를 하기전에 내가 바라보았던 세상의 모습과는 다를 것이다. 가족안에서 어머니가 밥을 짓고 계시는 모습도, 일상적으로 보아오던 화장을 한 여성의 모습도 무언가 계획적이라는 사실을 알고나면, 뭔가를 바꿔내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된다.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설득시키고 그 과정을 통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세상에서 살아갈 것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다.

여성학학회는 여성들의 정치성을 드러내는 공간이다.

"여자라서 무거운 짐도 안들게 하고, 얼마나 배려를 하는데, 차별이리니? 차라리 남자들이 더 힘들다." 라는 말을 듣는다. "하긴, 오티 갑작에 남자들이 무거운 짐 다 들고, 여자들이 좀 편하게 가긴하지." 라는 말을 듣는다. 이런 말들은 한 여학우가 남학우들에게 여성문제에 대해 문제제기하였을 때, 반론의 근거로 사용된다. 다수안에 소수가 섞여있을 적에, 소수가 말을 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본 위기를 망친다는 이유로, 논리없다는 이유로 깨지기 쉽상이다.

반면에 여성이 술을 잘마시고, 잘 놀고, 힘이 세거나 할 경우에 남성들의 반응은 "와 대단한 여자다" 라는 반응이다. 여성이 여성적 문화에 속해있지 않고 남성적 문화에 가까운 것은 더 나은 것이며, 오히려 추앙되기까지 하는 것이다. 여성이 문화적 소외를 느끼게 되는 것은 남성적 문화를 비판했을 때이며, 이 때는 주류의 문화-남성적 문화-에서 배제됨과 동시에 정상적이지 못함의 범주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 남성중심적 대학에 살면서 여성의 입장을 경험을 명백히 소리높여 외친다는 것은 이를 위한 전문적 조직에 속해있지 않는한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인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여성들만의 조직이 만들어질 필요성이 있다. 여성들의 조직에서 여성들이 경험을 공유하고, 비판할 근거들을 마련해가고, 직접 비판함으로써 자신의 입장을 표출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공간이다. "여성은 억압당하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나는 여성이 해방된 사회를 원합니다." 말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곳이 바로 여성학학회이다.

여성들간의 연대를 모색하는 공간이다.

여성학학회는 세미나와 내부 구성원간의 교류로만 구성되는 공간이 아니다. 학내의 다른 여성학학회와의 교류를 통해 세미나 커리와 활동의 방식들을 공유하고, 보다 나은 학회의 방향을 세운다. 또한 학내의 남성중심적 틀을 바꾸어내기위해 다른 학내 여성운동 단위와 연대를 통해 다양한 실천을 진행한다. 여성노동자들이 진행하는 집회에 연대참여하기도 하고,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에 참여하는 등 사회의 여성들, 그리고 학내의 여성들과 연대하여 여성해방적인 사회를 위한 활동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다.



법대 여성학학회

'하늘의 절반'을 소개합니다.

■ 하늘의 절반 학회장
98학번, 정민

0. 학회를 소개하며.

우리 학회는 학회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하늘 아래 절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의 동등한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여성들의 문제를 고민하는 곳이다. 그래서 법대 내에서 여성학을 공부하고 그의 실천을 진지하게 고민하려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여성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 여성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는 여성운동의 주요한 목표이고, 더 나아가서 여성해방의 주된 토대가 된다. 그래서 법대 내에서 여성문제들에 대한 토론을 활성화시켜나가고 궁극적으로는 여성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를 위한 실천의 한 계층으로 '하늘의 절반'이라는 여성학회가 지난해에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1. 학회의 기초.

학회의 기초는 지금 현 시기의 정세파악에 기초해서 여성운동의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삼았다.

그 첫 번째는 법대내의 [반성폭력운동의 활성화]이다. 지금 고대내에서는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제정운동과 함께 성폭력에 대한 담론화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그러한 일련의 흐름에 발맞추어서 법대내에서의 성폭력 근절을 위한 담론화가 필요하다는 생각하에서 세워진 것이다.

그리고 예전부터 여성노동권의 문제는 심각하게 제기되어 오던 문제이지만 IMF에 의한 구조조정 이후 여성노동자는 정리해고 0순위에 올라가게 되어 노동시장에서의 주변화 현상이 심해졌다. 따라서, [여성노동권 확보]는 현시기에 해결해야 할 하나의 중요한 사안이 되었다.

우리학회는 반성폭력운동과 여성노동권의 확보를 기초로 삼고 이를 중심으로 활동들을 해 나가

고 있다.

2. 학회의 목표

1) 정치적인 목표

우리학회의 정치적인 목표는 법대 내에서, 더 나아가서는 고대 내의 다른 여성운동 단위와 연대해서, 대중활동과 세미나를 통해, 학회원들은 물론 다른 학우들과 함께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래서 법대와 고대전체 내에서의 남성중심적인 구조를 바꿔나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 할 수 있다.

2) 조직적인 목표

먼저 학회원들이 기존의 사고방식들에서 탈피해서 남성중심적인 사고가 팽배해 있는 현 사회에서 여성문제를 고민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실천의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의 과정을 함께 하는 과정속에서 학회원들의 결속력을 다지고 여러 실천의 방법을 통해서 여성운동에 대한 고민을 하는 인자들을 양성하는 것이 우리 학회의 조직적인 목표이다.

3. 학회의 활동들

우리 학회에서는 위에서 언급했던 기초와 목표를 바탕으로 해서 이론과 실천이 조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이를 위한 세미나와 사업으로 나누어서 소개하겠다.

1) 세미나

세미나는 학생이라는 특별한 조건에서 발생하는 지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이것이 학회라는 공간 안에서는 학회생활의 핵심이라고 할 만큼 중요하다. 여기에서 지적인 욕구란 고등학교까지 협소하게 가두어져 있었던 시야를 확장하고 싶어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학회는 여성학학회이기는 하지만 단지 여성학이라는 학문 하나에만 치우치지 않고 고등학교 때까지 받아왔던 제도교육의 틀을 깨기 위한 기초적인 사회과학 세미나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학 세미나를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시기별로 실시하고 방학때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2) 사업들

대중들에게 알려나간다는 목표하에 올해에 기초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업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예를 들어 법대내에서 성폭력 근절을 위한 자치규약 제정운동을 한다면 여성노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개세미나를 한다면 하는 것들이다. 그리고 다른 단위와 연대해서 대중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4. 고대 내에서의 여성운동의 활성화를 기대하며.

이렇게 하늘의 절반 석권들이 토론을 통해 세운 기초와 목표를 가지고 구체적인 활동들을 하고 있다. 비록 아직은 생김지 얼마 되지 않은 학회이어서 그의 영향력이 아직은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도 여성학을 고민하는 학회가 법대내에서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여성문제, 여성학에 대한 인식이 어느정도는 좋아졌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법대 내에서는 여학생회와 여성학학회가 있지만, 타 단위에서는 학생회는 물론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자치단위조차 없는 곳이 허다하다. 그래서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여성학에 대한 재국된 인식이 아직도 고대를 뒤덮고 있는 것 같다. 특히 고대와 같이 남성중심적인 문화가 있는 곳에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자치단위들의 활동이 적을 수밖에 없다. 학회 소개를 마치면서 타 단위에 자치단위들이 하루 빨리 건설되어 고대 전체에서 여성문제가 활발하게 다뤄질 것을 기대해 본다.



경영대 여성학회 이야기

경영대 여학생회장 조인경

1. 학회 건설 과정 및 결과

경영대 여성학회는 97년 가을에 조직되었다. 97학번 한 여학우의 노력으로 여학생회실이 정비되고(여성학도서가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잡기장도 생기는 등 당시 경영대 여학생회로서는 매우 새로운 일이었다), 더불어 여성문제에 대한 관심 또한 가지게 되어 여성학회를 구성할 준비를 하게 되었다. 여름 방학 때부터 간사를 해 주실 세 분의 95학번 언니들과 여성문제에 대한 오기심을 가지고 세미나에 참가하게 되는 6명의 97학번 여학우들을 섭외 했다. 간사는 이전에 여학생위원회의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하셨던 분들로서 쉽게 섭외 되었으나, 학회원을 6명까지 늘리기 위한 노력은 97년 가을 학기 내내 진행되었다. (학회 하나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이 생각보다 간단 하다고 느낄지 모르겠다. 그러나 처음 만드는 과정은 한두 명의 의욕만으로 가능하나, 이후 학회가 유지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무수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6명의 학회원 중 세미나 커리 일정(97년 가을 - 98년 봄)을 마친 친구들은 3명에 불과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작용했다.

원인 1. 가을학기에 조직된 학회는 학회만의 구성원을 가지기가 힘들었다.

학회원의 절반이 이미 다른 조직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것도 다른 주제를 공부하는 학회를 말이다. 그들은 이미 한 학기를 다른 단위에서 성원들과 함께 지냈기에, 새로운 조직에서 낯선 친구들과 새로이 관계를 만드는 것을 힘들어 했다. 시간을 쪼개는 것도 힘들었고 말이다.

원인 2. 학회사의 부재, 이는 일상의 공유에 기반한 공동체적인 학회가 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함께 일상을 같이하며 서로의 관계를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학회실의 부재로, 세미나를 하는 날에 딱딱 모였다가 헤어지는, 목적 우선적인 조직이 되어갔다. 정말 신기하리 만치 전화 한 통화만으로 세미나를 하는 날에는 발제문까지 준비하여 모두들 모였고, 못 올 때는 연락을 해 주는 예외를 보여 주었다.

또, 우리 학회는 세미나만을 했다. 즉 23주에 한 번씩 만나 세미나를 하는 게 다였다는 것이다. 방학을 이용해 학습 겸 MT도 가고 여성대회나 수요집회, 학내 여성문제 관련 행사에 참여하기도 했지만, 그런 경험들을 함께 정리하고 생각을 나눌 그런 자리가 부재했다는 것이다.

원인 3. 여성학회 혹은 여성운동에 대한 문제의식의 부재이다.

앞서 목적 우선적인 조직이 되어갔다는 지적을 하였다. 학회원의 상당수가 개인적인 여성학에의 관심에서 출발하여 학회를 시작하였고, 이는 세미나를 통해 무언가를 더 알고 싶다는 수준의 의식에서 그쳤다. 세미나를 통해 실천적인 운동에 대해 논의를 한 바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 깊이 있게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했었고, 그들을 행동으로 이끌만한 어떤 계기도 부족하였던 것 같다. 이는 당장 학회원의 재생산 문제와 직결되어 운동이나 개인적인 관심의 수준을 넘어서는 지속적인 학회활동에 대한 고민, 의욕의 부재를 낳았고 98년, 99년에까지 여성학회는 단 한 명의 학회원을 재생산해내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1년 정도의 세미나를 하면서 마지막까지 함께 했던 학회원들이나, 중도에 그만 둔 학회원들이나 여성학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여성문제에 대해 보다 더 가깝게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던 것 같다. 이는 여성으로서 살아갈 이 세상에 대한 기본적인 준비의 과정이었다는 생각도 들고 말이다. 다만 아쉬운 것은 문제되는 상황을 바꾸기 위해 스스로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생각까지 미치지 못한 것, 해결의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다. 요컨대 실천이나 번역에 대한 동기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

앞으로 생겨날 고대의 여성학회도 그렇고, 다시금 일어설 경영대 여성학회도 그렇고, 학회 활동의 중심이 세미나인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세미나에서 생각하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체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직접 경험과 실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2. 경영대 여성학회의 세미나 커리

◆ 기초 세미나 (1-4차)

1차 : 내 안의 '성차별의식' 사회가 필요한 '여성다운' 그릇을 만들기 위해

-〈깍뎀기를 벗고서〉

그 외 대체 커리 : 새내기 여성학, 삶의 여성학, 일곱 가지 여성 콤플렉스, 여성이야기

주머니 등

2차 : 여성학 학습의 눈을 키우기 위해

-〈새로 쓰는 성 이야기〉 또 하나의 문화 + 성교육 자료

그 외 대체 커리 : 섹스북, 여성과 한국사회, 남자의 결혼, 여자의 이혼, 그러나 매춘은 없다 등

3, 4차 : 여성학 입문서 (여성학의 기원과 여성노동의 문제 등)

-〈여자는 왜〉동넵 (혹은 여성학 강의)

◆ 본 세미나 (5-10차)

5차 : 가족

〈성평등의 사회학〉 중 가족

보조커리 : 〈가족은 반사회적인가〉 중 2장, 〈페미니즘 시각에서 본 가족〉 중 1장

6차 : 가사노동

〈가사노동에 관하여〉 - 김영희, 여성과 사회 창간호

〈여성학 한국사회〉 중 7장

7차 : 성폭력과 매매춘

〈그러나 매춘은 없다〉 - 하은경

〈매매춘과 자본주의〉 - 석순 제 11집

〈성폭력의 개념과 유형, 그 원인에 대한 고찰〉 - 석순 제 9집

〈이것이 성희롱이다〉 - 우영은

8차 : 여성노동

〈성평등의 사회학〉중 3장 '성평등적 노동구조를 위하여'

석순 13집 '신인력정책과 여성노동자의 미래', 박홍주 논문

보조커리 : 〈여성학 한국사회〉 중 8장 '여성학 노동시장'

9차 : 여성해방의 이론

〈페미니즘 사상〉 - 로즈마리 톰

10차 : 여성운동

〈여성운동과 정치이론〉중 제 3부 '한국의 여성운동'

◆ 심화 세미나 (11-14차)

11차 : 여성의 시각으로 보는 영화

12차 :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여성해방적 접근 - '가부장적 자본주의 국가론'의 재구성〉

장미경 논문

13차 : 〈매스미디어와 여성〉 - 김신남

14차 : 〈오늘의 페미니즘, 세계여성운동〉 - 장미경 편저 + 여성운동에 대한 에세이 쓰기

여름방학을 여성문제 연구회와 함께 해요!

□ 여성문제연구회는?

여성문제연구회는 총여학생회가 해소된 89년, 학내 여성학 언론기구인 석순 편집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시도하게된 대중적인 여성학 세미나 모임입니다. 학내의 침체되어가는 여성문제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고, 학내여성운동의 흐름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4대 여위가 재건된 96년부터 여학생위원회가 주최를 하게되었고, 지난 98년 겨울로 14기 여성문제연구회를 성황리에 마친 상태입니다.

여성문제연구회는 현사회에 구조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가부장제의 여러 발현의 지점들을 잡아내어 함께 비판하고, 이를 변혁하려는 실천의 의지 모아내어 직접행동하는 공간입니다.

여성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침해인 성폭력에 대해, 여성을 공적 영역에서 배제시키고 사적영역에 한정짓도록 하는 가족의 문제에 대해,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주변화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문제, 현시기 여성운동의 방향성과 외국의 여성운동 전례들을 공부함으로써, 현실속에서 학우들이 고민하는 지점을 좀더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질수 있게 됩니다.

또한 중간모임과 전체모임을 통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수요집회에 참여하는 등 여성학적 문제의식을 여성학적 실천으로 가능하게 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여성문제에 관심이 많은 고대생 여러분의 관심을 바랍니다.

어떻게 모집하나요?

☑대상: 여성문제에 관심이 있는 학우들이라면 누구나...

☑신청방법: 6월 초에 7대 여학생위원회에서 대자보를 통해 신청기간을 공고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여학생위원회 방으로 오십시오.

간단한 신청서 작성을 통해 여러분은 여성문제연구회의 성원이 됩니다.

Sexuality

한국 사회의 성문화와 성정체성을 중심으로

강사: 변혜정

(어대 여성학과 박사과정, 시립대 여성학강사)

일시: 5월 18일 늦은 5시

장소: 제 2학관 소극장

성문화와 성정체성

변혜정(이대 여성학과 박사과정, 서울 시립대 여성학 강사)

* '성적인' 것은 무엇인가?

* 우리 사회의 성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로 성폭력을 문제화하기

1. 어디까지 성폭력인가?
2. 성폭력은 여성피해/남성가해의 문제인가?
3. 성폭력특별법은 남자들에게만 억울하지 않는가?
4. 사람마다 성폭력을 받아들이는 것이 다른데 어떻게 이를 규제할 수 있을까?
5. 기분 좋을 때는 같이 농담하다가도 어떤 때는 성희롱한다고 하니 일관성이 없지 않는가?
6. 성폭력피해를 당했다는 여성들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7. 데이트 강간과 성관계는 어떻게 구분가능한가?
7. 그렇다면 키스할때도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야 하는가?
8. 사소한 것까지 성폭력이라 한다면 세상이 너무 팍팍하지 않는가?
9. 성폭력을 당한 여성은 그래도 다 이유가 있지 않는가?

---> 토론하면서 성폭력에 얽힌 통념을 만들어 보자

---> 성폭력이 있다는 객관성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까?

* 성폭력 대책을 고려할 때 고민해야 하는 요소

1. 성별화된 사회의 정치/경제/사회적인 구조의 변화
2.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성문화의 변화
3. 성교육의 필수화
4. 성폭력특별법의 문제점 개정
5. 정체성의 형성과정에 개입하기 : 남성적 정체성/ 여성적 정체성의 형성과정

---> 무엇이 여(남)성으로 만드는가?

---> 남성만들기 : 남성욕망의 구성 : 성폭력 : 사소한 것

여성만들기 : 욕망의 대상으로서 구성 : 데이트강간과 성관계의 모호성

* 섹스/젠더/섹슈얼리티와 페미니즘

우리말로 '성'은 영어로는 여러 가지(sex, gender, sexuality)로 나뉘어지며 각각의 의미는 다르다. 페미니스트들은 흔히 sex, gender, sexuality를 구분하지만, 이들 개념이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개념없이 어떠한 사실에도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분석적으로 구분하려 한다. 동시에 무엇이 문제인지도 간략하게 정리해 보자.

1) 생물학적 성(sex)이란 신체구조, 특히 성기의 생김새에 따른 남

녀의 성정체감을 말한다. (물론 sex는 대화나 글에서는 성기결합인 성관계를 의미하기도 한다.) 인간의 호르몬이나 생식기능의 차이 및 유전자 등의 생물학적 요소, 혹은 정신, 심리구조 등의 본질적인 요소들로 인해 역사와 문화를 초월하여 고정 불변한 남녀의 차이나 성적인 선호의 차이들이 발생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적 욕망이란 자연적, 내재적 본능이며, 남녀는 생물학적 차이에 의해 서로 상이한 성적 욕망을 갖는다. 예를 들어 남성중심적 사회에서는 남성들은 강력하고 억눌 수 없는 성적 욕망을 가지고 있으며,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성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 여성들은 성적 욕망이 없으며, 성관계에서도 수동적인 특성을 보이는 등 생물학적 차이에 의해 수동적인 성적 대상으로서의 여성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섹스를 중심으로 한 정치학에서는 생물학적 차이가 있는 한 남녀의 비대칭적인 특성은 운명과 같은 것이므로 사회, 문화적인 차원에서 변화를 통해서 남녀의 성적욕망의 구조는 바꿀 수 없다고 본다. 그로 성적 주체로서의 여성의 행위성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 이는 결국 기존의 성기중심적, 이성애 중심적, 남성중심적 성문화를 정당화하고 유지시키게 된다. 따라서 여성들은 남성들의 성적 희생물이 되는 데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으며 기존의 억압과 지배를 그대로 유지시키게 된다.

나아가 본질이라는 절대적 속성을 정상적인 것, 자연적인 것으로 보고 그것을 벗어난 것은 비정상적인 것, 옳지 못한 것으로 위계화한다. 좋은 성과 나쁜 성, 중심과 주변으로 나누게 되면서 주변화된 성적 관행들을 일탈적인 것으로 본다. 이는 여성들, 청소년들, 노인들, 동성애자들과 같이 성적 소수자들의 성적 권리를 억압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2) 성별(gender)이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남녀의 정체성, 즉 문화적,

사회적으로 길들여진 성이며 여성다움(여성적이다), 남성다움(남성적이다)을 통칭

한다. “저 여자애는 남자같애”에서 ‘여자’는 sex이며 남자같은 ‘남자’는 gender에 해당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특정sex에 부합되는 gender적 특징이 있다는 믿음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으며 그 방향으로 사회화를 시킨다. 이러한 사실을 비판하며 페미니즘에서는 생물학적 성차인 섹스와 사회적인 성별인 젠더는 무관함을 강조하는데 주력하여 남성성과 여성성이 생물학적 차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중심사회에서 권력을 가진 남성들에 의해 여성들에게 부과된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그리고 성이라는 영역이 여성억압의 중요한 영역이며, 남성의 권력이 작동하는 정치학의 영역임을 드러내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젠더를 강조하는 성연구는 남녀의 차이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만들어져 왔다는 점을 강조하는데는 유용하였지만,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화된 범주를 보편화시켜 모든 여성을 문화를 초월하여 동일성을 가지는 보편적 범주로 보게 하여 다양한 여성들의 성적억압을 다루지 못하였다. 그래서 인종, 국가, 계급, 성적지향(이성애자이건 동성애자이건 간에)에 관계없이 모든 여성은 여성인 한에는 동일한 억압을 받는 것으로 상정된다. 여성이기 때문에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매매춘의 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있고 포르노그래피에서 성적 대상이 된다는 공통점을 지녔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섹스와 성별은 무관하지만 성별과 섹슈얼리티는 서로 연결되면서 성별이 섹슈얼리티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게 한다. 그러므로 이성애자 여성과 동성애자 여성의 성적 억압의 차이를 드러내기 어려웠으며, 결혼내 여성의 성적 이해와 매매춘 여성의 성적 이해의 대립 등의 여성들간의 대립과 갈등을 풀지 못했다. 또한 남성과 여성이라는 대립적이고 이분화된 범주를 강조하다 보니 공격적/지배적/착취적인 남성의 성, 관계적/친밀함/상호적인 여성의 성이라는 방식으로 여성의 성을 본질화하게 되었다. 이러한 본질화는 한편으로는 여성의 성이 우월하고 순수하며 또 한편에서는 여성의 성을 취약하고 위험한 것으로 보게 하는 위험도 있다. 결국 여성의 성적 위험만을 강조하게 되면서 여성의 성적 쾌락의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를 간과하였다.

3) 섹슈얼리티(sexuality)란 성적인 욕망들, 성적인 정체성 및 성적 실천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적인 감정 및 성적으로 맺게 되는 관계들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우리의 성적 느낌과 관계들 그리고 우리가 자신을 규정하는 방식뿐 아니라 우리가 타인에 의해 성적으로 규정되거나 규정되지 않는 방식들이다. 또한 심리적, 역사적, 사회적인 개념이며 의식, 무의식, 역사적,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 제도이다.

인간 행위와 활동으로 표출되며 인간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체현되기 때문

에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고찰되고 논의되어야 비로소 인간의 삶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드러난다. ‘성적인 것’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며 사회문화적, 역사적 배경과 조건, 행위 양식에 의해 결정되는 유동적인 개념이다. 그러므로 성적인 욕망이나 성적인 행위, 성적인 관행 등은 성별 뿐만 아니라 계급, 인종, 연령, 성적 선호, 구법, 제도들에 의해 다양하게 구성된다는 점에서 유동적이고 다원적이므로 성적 범주의 경계는 유동적이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는 남성/여성, 이성애/동성애, 게이/레즈비언과 같은 이분화되고 위계적인 범주화를 거부하게 된다. 이는 성적 억압의 문제를 여성/남성의 구도로 풀어가기 보다는 한시적이면서도 유동적인 관계를 통해 주변화된 성적 소수자들이 연합하여 성적 억압에 저항할 것을 주장하게 된다. 이러한 시각은 페미니즘의 성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확대하였다. 이는 이전의 고정화되고 이분화된 성별의 하위구조로서 섹슈얼리티를 연구하는 것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여성억압과 성적억압을 중층적으로 다룰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젠더 변수를 강조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남성들만의 이해를 관철하지 않았가하는 점에서 페미니스트들은 우려를 하고 있다.

〈표 1〉 sex, gender, sexuality

	sex 정치학	gender 정치학	sexuality 정치학
개 념	신체구조에 의한 남 녀의 성정체감을 전 제하여 남녀관계를 분석함	사회적, 문화적으로 구성되는 성정체감을 전제하여 남녀관계의 권력구조를 분석함	성적인 욕망들, 성적인 정체성 및 성적 실천등, 성적인 감정 및 성적으로 구성되는 권력관계를 드 러냄
성 적 욕 망 의 구 성	호르몬, 유전자, 생식 기능, 정신, 심리구조 등의 차이에 의해 결 정	권력을 가진 남성중 심적인 사회구조에 의해 결정	성별 뿐만 아니라 계급, 인종, 연령, 성적 선호, 규범, 제도들에 의해 다 양하게 구성된다는 점에 서 유동적이고 다원적
대 변 하 는 이 해	적극적인 남성의 성 적욕망/성적대상으로 서의 여성을 구조화 하는데 공헌->남성 중심적 사회 유지	남성보다 열등한 여 성을 만드는 제도, 구 조의 변화 ->여성의 이해	다양한 성적 범주의 사람 들의 이해 특히 성적 소 수자들 이해에 주목
정 치 학 의 한 계	남녀의 비대칭적 특 성은 운명이므로 남 성중심적 성문화 정 당화 좋은 성과 나쁜 성의 위계화-성적 소수자 의 성적 권리 억압	문화를 초월하여 보 편적 범주로 여성을 구성하여 여성들간의 차이와 쾌락을 드러 내지 못함 남녀의 이분법적인 본질(공격적/관계적...) 강조	여성의 언어와 경험이 드 러나지 않는 남성중심의 현재의 구조에서 젠더 변 수를 강조하지 않아 결과 적으로 남성들만의 이해 를 관철하지 않을까하는 우려

• 지금/여기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성문화를 어떻게 문제화할 것인가?

한국 페미니즘 성연구의 현황과 전망

1. 1990년대 한국 성문화와 페미니즘의 현황

1980년대 중반 한국에서 처음으로 페미니즘이 성을 학문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이후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성과 관련된 주제들은 학문적으로나 문화의 영역에서나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다. 현재 성에 대한 연구들은 페미니즘 이외에도 의학, 심리학, 철학, 문화 연구 등의 분야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극, 영화, 예술, 분야, 상업, 광고, 오락, 대중 매체 등에서도 빠질 수 없는 요소들이 되었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보화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사람들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가상 공간에서 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성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성이란 주제는 은밀하고 숨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의 일상적인 삶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었고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와 아울러 한국 사회의 성문화도 상당히 변화하고 있다. 1990년대 한국 사회의 성문화를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한국 성문화의 특징을 규정한다면 이제까지 소외되고 주변화되었던 집단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등장한 것을 들 수 있다.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성에 대한 주제들을 공론화하는 것을 금기시하였고 결혼을 벗어난 성을 일탈적인 성으로 규제해 왔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성애자 성인 남성(heterosexual adult male) 중심적인 성에 도전하는 다양한 저항 담론들이 제각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고 각각의 성적 관행들을 실천하고자 했다.

기성 세대는 10대 청소년들을 성에 대해서는 알아서도 안 되고 성적 욕망을 가져서도 안 되는 미성년자로 규정한다. 하지만 10대 청소년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성적인 존재라고 받아들이고 이에 도전한다. 이들은 만화, 잡지, 비디오, 통신 등을 통하여 이미 성에 대한 상당한 지식들을 습득하고 있다. 10대 청소년들에게 이성 교제는 보편화된 경험이 되었으며 성관계를 경험하는 비율도 점차 늘고 있다.

젊은 세대는 남녀 모두 성해방 사상을 당연한 사조로 받아들인다. 이들은 사람이 전제된다면 결혼과 무관한 성을 실천할 수도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이러한 성적 실천을 선택하는 것은 그들의 당연한 권리라고 본다.

나아가 이는 여성을 성적으로 억압하는 문제를 다루면서 기존의 남성 중심적인 성규범과 본의 아니게 결탁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문제가 다른 어떠한 여성의 성적 억압 문제보다도 가시적인 성과를 많이 거두게 된 데는 성적으로 순결한 여성을 아내로 삼고 싶어하는 남성들의 이해가 함께 관찰되었기 때문이다. 그 동안 페미니즘에서는 매매춘, 포르노그래피, 성해방, 동성애 해방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이러한 성적 이슈들이 성별 억압 외에도 성적인 억압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이를 성별 억압이라는 단선적인 이론으로 풀어 내려고 했기 때문이다.

급진적인 성정치학자들 역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들은 페미니즘의 성연구는 여성이라는 성별 문제로 모든 여성의 성적 억압을 다룸으로써 결국 이성애 관계 내에 있는 정숙한 여성들의 성적 억압만을 문제시하게 되었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이러한 방식은 페미니즘이 기존의 전통적 도덕주의 담론과 결탁하게 되어 페미니즘의 급진성을 퇴색시키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페미니즘에서 여성이란 범주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주변화된 성적 소수자의 한 부분으로서 여성을 범주화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여성이라는 동질성에 기반을 둔 배타적 정치학을 폐기보다는 다른 성적 소수자들과 연대하여 지배 권력에 저항하는 정치학을 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비판에 직면하여 한국의 페미니즘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성을 다루어야 할 것인가를 최대 과제로 삼게 되었다. 1980년대 이후에 쌓은 페미니즘의 성과들을 발전시켜 나가면서도 그것이 지닌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모든 여성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정도의 성적 억압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이들간의 차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페미니즘 진영 외부에서 새로이 등장한 급진적인 성정치학을 페미니즘에서는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이 글은 이러한 문제에 직면한 한국 페미니즘이 앞으로 어떠한 이론과 정치학을 가지고 성을 다루어야 하는가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필자는 이론적인 차원에서 성을 사회적·역사적 구성물로서 개념화하는 사회 구성론에 기반을 둔 성연구를 제안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적 지평에서 서로의 입지가 다른 여성들간의 차이를 드러내고 여성과 다른 성적 소수자들간의 차이를 서로 사상하지 않으면서 함께 연대할 수 있는 차이의 정치학 추구를 제안한다.

2. 사회적·역사적 구성물인 성

인간의 성적 욕망과 성적 행위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사회 제도와 규범들을 설명하고 분석하는 데 서로 대립적인 두 입장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 그 양대 입장이 바로 본질론과 구성론이다.

1) 본질론

본질론자들은 인간의 성은 자연적으로 타고난 본능이라는 본질적 속성을 갖고 있다고 본다. 이들은 인간의 성은 문화 독립적이며, 객관적이고, 내재적인 속성을 가진 본능의 영역이라고 전제한다. 본질론자들은 이와 같이 내재적인 본질적 속성(essence)으로 생물학적 요소를 든다. 따라서 이들은 개인 또는 집단간의 성적인 차이를 성기의 구조나 생식 기능의 차이 또는 성호르몬이나 유전자의 차이 등을 들어서 설명하고 때로는 이러한 신체적 구조의 차이에 따라 결정되는 정신·심리 구조로 설명하기도 한다.

이들은 인간의 성은 생물학적 요소와 같은 고정 불변의 본질이 결정한다고 본다. 즉 남성과 여성의 성인식의 차이나 동성애자와 이성애자의 성적 지향의 차이는 모두 생물학적 차이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결정되어진 성적 정체성들은 사회 문화적인 변화와 무관하게 숙명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으로 믿는다.

일반적으로 남성 중심 사회에서는 남성들은 강력하고 억누를 수 없는 성적 욕망을 가지고 있어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반면, 여성들은 성적 욕망이 없으며 수동적이고 수용적이라고 간주된다. 본질론에서는 이러한 남녀의 성적 정체성의 차이가 생물학적 성차에 의해서 결정된 것으로 보고 이를 자연적인 것 또는 정상적인 것이라고 한다.

프로이트는 남녀의 생식기 나이 때문에 성심리 발달 과정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 과정에서 남성들은 초자아가 발달하여 독립적이고 적극적이며 주도적인 심리적 특성을 갖게 되는 반면, 여성들은 초자아가 발달하지 못해 의존적이고 나약한 심리적 특성을 갖게 된다고 보았다. 그는 남성들은 성적 주체가 되고 여성들은 성적 객체가 되는 것을 이러한 성별 정체성에 기반을 두고 설명하면서 정당화한다. 또한 오이디푸스 갈등을 해결하면 이성애자가 되고,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동성애자가 된다고 설명하면서 성적 지향은 생물학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개념화한다.

남녀의 차이, 이성애자와 동성애자의 차이를 성호르몬 차이로 설명하는 경우도 본질론에 속한다. 남성은 남성 호르몬 때문에 성적으로 공격적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남성이 여성에게 성폭력을 가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본다. 동성애의 경우도 임신 초기에 안드로젠이라는 호르몬에 균형 있게 노출되면 이성애자가 되고 그렇지 못할 경우 동성애자가 된다고 설명한다.

때로는 정자 수가 많고 난자 수가 적다는 것에 기초하여 설명하기도 한다. 남성은 다양성과 생식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많은 씨앗을 퍼뜨리는 진화적 동력을 가진 반면 여성은 온순하고 고분고분하며 보존적 본능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남성들은 일부 다처제를 선호하고 난교를 하는 경향이 있으며 여성들은 일부 일처제를 선호하게 된다.

이와 같이 본질론자들은 개인이나 집단의 성적 특성을 생물학적 요인으로 설명하여 성에 대해서도 성기 결합 중심으로 개념화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은 자연적인 성차 때문에 성적 정체성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본다. 나아가 인간에게 바람직하고 자연적인 성은 남녀간의 이성애적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기 결합적 성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다.

이러한 본질론자들의 견해는 문화와 역사를 초월한 보편적 자질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자연적인 설명 방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 보면 본질론자들의 입장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기보다는 사회에서 힘을 가지고 있는 집단의 성적 관행을 정당화하는 기능을 한다. 앞에서 남녀의 성적 차이를 설명하거나 이성애자와 동성애자의 정체성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본질론은 남성의 성이 규범적인 성이 되게 하고, 이성애가 정상적인 성이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본질론은 남성들의 성적 공격성이나 성적 문란함을 옹호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성애 공포증을 일으켰다.

본질론은 사회와 문화에 따라 개인의 성적 욕망이나 성적 정체성, 성적 관행들이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조선 시대 여성들에게는 성적 욕망이 거부되고 남성의 자손을 낳아 기르는 역할만이 강조되었다. 반면 1990년대 여성들은 한편으로는 순결하기를 기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성적 매력과 성적 적극성을 갖출 것을 요구받고 있다.

이와 같이 여성의 성적 정체성이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에 대하여 본질론은 조선시대의 여성과 1990년대의 여성은 생식 기능이 달라졌고 호르몬의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고, 만약 그렇다면 생식 기능이나 호르몬과 같이 고정 불변의 본질을 상징하고 있는 것과 모순이 된다. 1990년대에는 한국의 동성애자들도 성적 소수자로 주변화된 위치에 반기를 들고 그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는데, 그렇다면 1990년대에 생물학적 변화가 일어나 동성애자들이 등장하게 되었는가?

본질론은 역사와 문화를 초월한 본질적인 속성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들이 고정된 것으로 보는 결정론에 빠지는 데 문제가 있다. 생물학적 차이가 있는 한 남녀의 비대칭적인 특성은 운명과 같은 것이므로 사회, 문화적인 차원의 변화를 통해서 바뀔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수용하면 여성은 남성의 성적 희생물이 되는 데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이는 여성의 성적 행위성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기존의 억압과 지배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문제가 있다.

2) 사회 구성론

그렇다면 성을 어떻게 개념화해야 하는가. 우리는 본질론적 입장을 넘어서 사회 구성론적 입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구성론은 위에서 언급한 본질론의 한계들에 부딪히면서 새로이 등장한 이론으로, 섹슈얼리티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실질적 연구를 발전시키고 급진화하는 데 상당히 기여하였다.

사회 구성론은 인간의 성이란 문화 의존적이며, 관계적인 것, 비객관적인 자질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인간의 성적 정체성, 성적인 욕망, 성적관행들은 고정된 본질에 따라 정해지

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처한 사회 관계와 문화적 맥락에 따라 구성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개인들이 어떠한 사회적·문화적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개인들이 표현하는 성은 다양해지고, 그것은 보편화할 수 없는 것, 즉 그 맥락 속에서만 의미를 가지는 특수한 것이 된다. 따라서 성은 사회적으로 조직되는 것이며, 사회 관계들에 따라 다르게 생산되는 것으로 친족과 가족 체계, 경제적, 사회적 조직체, 사회적인 규제, 정치적인 규제, 저항 문화 등의 모든 사회 관계와 연관지어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웁스, 1994).

구성론적 입장에서 본다면 시대에 따른 여성들의 성적 역할 변화도 사회 문화적 맥락의 변화로 설명해야 할 것이다. 모든 것을 상품화하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 등장, 소비 사회 도래, 여성의 사회적 노동 참여, 피임기술 발전, 자녀수 감소 및 핵가족·제도 보편화, 페미니즘을 통한 여성의 성적 권리 신장 등과 같은 사회적 인 요인과 아울러 여성의 성적 정체성의 변화를 설명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남성과 여성의 성적 정체성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 기제를 통해서 구성되는 것이 된다. 남성 중심 사회에서는 여성들을 성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남성은 강한 성충동을 가진 것으로 규정하고 남성들의 성적인 자유와 성적 주체성을 보장하는 성문화를 가진다. 반면 여성들은 성적인 순결을 지킬 것과 남성의 성적 만족을 위해 도구화될 것을 강요받는 문화를 만들어 낸다.

남성과 여성은 어린 시절부터 학교 교육이나 가정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남성 중심적 성문화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뿐만 아니라 대중 매체나 음란물을 통해서 비대칭적이고 왜곡된 성인식을 습득하게 된다. 성인이 되어서도 남성은 동아리 모임이나 군대, 직장 등과 같이 남성만으로 이루어진 조직을 구성한다. 이러한 조직을 통해서 남성들은 성에 대한 정보를 독점하게 되고, 이를 토대로 여성 비하적인 성을 즐기면서 남성들간의 결속력을 다진다.

남성과 여성의 비대칭적인 성적 정체성은 바로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구성되는데, 이것은 성이 가치 중립적인 영역이 아니라 권력 이 작용하는 영역 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3) 사회 구성론의 의의

사회 구성론적 관점에서 보면 성에 대한 개념화가 본질론과는 달라지게 된다. 본질론이 성을 본능적이고 신체 중심적인 것으로 개념화한다면 구성론은 특정한 역사적·문화적 맥락에서 구성되는 담론과 실천 체계를 가리키는 섹슈얼리티로 개념화한다. 섹슈얼리티란 성기 결합을 의미하는 개념을 넘어서 성적인 감정 및 성적으로 맺게 되는 관계들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개인들이 갖게 되는 다양한 성적인 욕망들, 성적인 정체성 및 성적 실천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회 구성론은 성을 사회 문화적 맥락과 연결지면서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성적 관행들

이 정상적이고 자연적인 것이 되는 반면 그 이외의 성은 배제되고 주변화되는 과정을 탐구할 수 있게 한다. 구성론자들에 따르면 근대 사회에서 남성의 성적 욕망과 성적 행위들이 규범적인 것이 되고, 이성애적 관행이 정상적인 규범이 되는 것은 남성과 자아가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행사한 결과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이란 생물학과 자연의 영역이 아니라 모든 사회 관계들이 개입하여 특정 집단의 이해를 관철하는 정치학의 영역이라고 본다. 그들은 특정한 섹슈얼리티를 구성하는데 작용하는 권력의 기제를 드러내는 것을 중시한다.

푸코는 섹슈얼리티가 역사적으로 사회 통제의 중요한 방법이었음을 밝히면서, 섹슈얼리티를 통한 통제의 방식도 시대에 따라 변해 왔다고 주장한다. 근대 이전에는 규제나 금지와 같은 억압적이고 부정적인 방법이 사용되었다면 근대 이후로는 개인화된 규율을 통해 권력이 작용하는 통제로 변형되었다고 한다. 푸코는 이러한 권력을 '규율 권력(disciplinary power)'이라 하였다. 규율 권력은 주로 인간의 신체를 통제하고 규율하는 데 작용하는 권력이다. 이는 특정한 유형의 신체를 정상적이고 표준적인 것으로 제시하여 개인들이 이러한 신체를 만들기 위해 자발적으로 권력의 통제 아래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다. 여성들이 날씬하고 섹시한 몸매를 가꾸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면서도 그것이 통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즐기는 것이 이러한 예에 해당한다. 여성들은 왜 섹시한 몸매가 되어야 하는가, 왜 비정상적으로 마른 체격이 여성다움의 규범이 되는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날씬하면서도 볼륨이 있는 몸매를 만들어 가면서 자아 실현을 했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권력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도 이를 통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발적으로 권력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권력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식이 된다.

사회 구성론은 성을 역사적으로 구성된 담론적 산물로 개념화하여 성적 범주나 성적 욕망, 성적 실천 등은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양해지고 그 맥락 속에서만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특정한 성적 관행들을 절대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그러므로 구성론에서는 성적으로 정상/비정상, 좋은 성/나쁜 성, 중심/주변이라는 위계적 이분화가 불가능하게 되고 이는 성적으로 주변화된 집단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 유리한 입지를 제공한다. 이 런 점에서 구성론적 관점은 개인들의 성적 주체성(agency)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3. 페미니즘과 사회 구성론의 만남과 긴장의 발생

사회 구성론은 성을 역사적인 맥락에서 연구하고 그 과정에서 권력이 작용하는 과정을 드러내 성적 소수자들의 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입장은 여성이라는 주변화된 집단의 성을 연구하는 페미니즘에 유용할 것이다. 하지만 사회 구성론은 고정되고 보편화된 이론과 범주를 인정하지 않고 다원주의적인 입장을 갖기 때문에 여성이라는 고정된 범주에 기반을 두고 성문제에 접근하던 페미니즘과는 긴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구성론과

페미니즘이 만날 때 이 둘은 어떠한 접점을 형성하는지,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sex), 성별(gender), 섹슈얼리티(sexuality)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다루어 보겠다.

1) 생물학적 성(sex)

섹스란 생물학적 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질론적 관점에서 보는 성을 말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성적 욕망이란 자연적으로 내재된 본능을 말하며 성의 개념은 남녀의 성기 결합과 같은 신체에 한정된다.

생물학적인 성의 관점에서는 생물학적인 성차가 남성과 여성의 성차를 만들어 내고 그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성이 다르게 결정된다고 한다. 남녀의 성기 구조나 생식 능력의 차이에 따라 남성은 적극적이고 공격적이며 주도적인 특성을 갖게 되며, 여성은 수동적이며 유약한 특성을 갖게 된다. 이러한 성별 정체성은 다시 남성과 여성의 성적인 능력이나 기능에도 차이가 생기게 하여 남성은 공격적이고 주도적인 성행위를 하게 하고 여성은 수동적이며 남성의 성적인 대상이 되게 한다는 것이다. 즉 생물학적 성이 성별, 섹슈얼리티를 결정하여 sex-gender-sexuality가 정합성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

여성-여성성-여성적인 성의 연결 고리는 자연적인 성리에 따라 결정된 것이므로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에 도전하는 어떠한 일체의 노력도 자연에 거스르는 것으로 간주한다. 결국 이러한 입장은 기존의 성기 중심적이고 이성애 중심적이며 남성 중심적 이성문화를 정당화하고 지속시킨다.

2) 성별(gender)

성별이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남녀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젠더란 생물학적 성이 남성과 여성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 등장한 대명이다. 즉 생물학적인 성과 사회적인 성별은 필연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성별은 생물학적 차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 중심 사회에서 권력을 가진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사회적으로 부과한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별은 관계가 없을지라도 gender-sexuality는 정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본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생물학적인 성과 사회적인 성별은 무관하다고 본다. 하지만 일단 사회적으로 여성이라는 성별을 가지면 어떠한 사회적 위치에 놓여 있는 동일한 성적인 억압을 받는다고 가정한다 미국의 여성이건 한국의 여성이건 잘살든 못살든 모두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고 매매춘의 서비스 제공자가 되고 포르노그래피에서 성적 대상이 되는

여성으로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성별의 관점에서 성을 연구하는 것은 성이라는 영역이 여성 억압의 중요한 영역이며 남성의 권력이 작용하는 정치학의 영역임을 드러내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나아가 남녀의 차이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라는 점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본질론을 넘어서 사회 구성론으로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성별이 섹슈얼리티를 결정한다고 보는 점에서 완전한 사회 구성론으로 발전하지는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 계는 모든 여성의 성적 억압의 문제를 남성과 여성이라는 고정되고 이분화된 범주로만 분석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여성이라고 할지라도 각각의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성적 억압이 다를 수 있다. 인종, 계급, 성적 지향, 성적인 경험의 여부에 따라 사회적으로 받는 억압의 정도는 다를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성애자 여성의 성적 억압과 레스비언 여성의 성적 억압이 같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결혼한 정숙한 여성이 성폭력을 당한 것과 매춘 여성이 성폭력을 당한 것은 동일한 정치적 의미를 갖지 않는다. 성별의 관점은 이러한 여성들간의 차이를 부각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남성과 여성이라는 대립적인 범주를 강조하다 보니 남성의 성은 공격적·지배적·착취적이고, 여성의 성은 관계적·친밀함·상호적이라는 방식으로 본질화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본질화는 한편으로는 여성의 성이 우월하고 순수한 것이라고 돋보이게 할 수도 있지만 여성의 성을 취약하고 위험한 것으로만 보게 하기도 했다. 결국 여성의 성적위험만을 강조하게 되면서 여성의 성적 쾌락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를 소홀하게 다루는 결과를 낳았다.

3) 섹슈얼리티(sexuality)

섹슈얼리티란 성적인 욕망들, 성적인 정체성 및 성적 실천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적인 감정과 성적으로 맺게 되는 관계들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섹슈얼리티란 사회 구성론적 관점에서 개념화한 것으로 성을 다양한 사회 문화적 맥락들 내에서 모든 사회 관계들과의 작용을 통해 구성되는 것으로 보는 개념을 말한다.

섹슈얼리티는 성별뿐만 아니라 계급, 인종, 연령, 성적 선호, 규범, 제도들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된다는 점에서 성을 유동적이고 다원적인 것으로 본다. 섹슈얼리티의 관점에서 보면 성적 욕망이나 성적 정체성들이 주체의 맥락적 위치에 따라 구성되는 일련의 '과정'이므로 남성/여성, 이성애/동성애, 게이/레스비언과 같은 성적 범주의 경계가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sex-gender-sexuality 사이의 고정적이고 일관된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남성 중심의 사회라는 맥락에서 이 세 가지가 연관되어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연적인 것이지 필연적인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므로 섹슈얼리티의 관점에서는 성적 억압의 문제를 여성/남성의 구도로 풀어 가기보다는 성적으로 주변화된 집단의 억압을 정치적으로 이슈화하는 데 우선순위를 둔다. 이들은 여성 억압(gender oppression)으로서 성적 억압을 문제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억압(sexual oppression)을 문제시하는 것이다. 성적 억압을 문제시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좋은 성/나쁜 성, 정상적인 성/비정상적인 성, 자연적인 성/일탈적인 성으로 위계화하는 데 도전하는 것을 말한다.

각 사회는 서로 다르기는 해도 일련의 성적 위계 구조를 가지고 있다. 사회는 이러한 위계 구조 아래에서 바람직한 성과 그렇지 못한 성을 구분한다. 그리고 사회가 인정하는 성을 정상적이고 규범적인 성이라고 하고 이를 벗어난 성을 일탈적이고 비정상적인 성이라고 주변화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회는 구성원들이 다양한 성적인 관행을 선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성적 억압이 발생한다.

섹슈얼리티의 관점에서는 성적 위계화에 따른 성적 억압을 일차적으로 문제시하기 때문에 여성의 성적 억압의 문제도 여성을 성적 소수자의 범주에 포함시켜 해결하고자 한다. 즉 성적 억압이 해결되면 여성으로서 겪는 여성의 성적 억압도 자연히 해결된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성별의 관점에서의와 같은 페미니즘의 성연구를 비판하고 성적 소수자들과 함께 연대하여 여성의 성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 구성론적 시각에서 주장하는 섹슈얼리티 관점은 페미니즘 성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연 것이 사실이다. 이는 이전의 고정화되고 이분화된 성별로 성을 연구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여성 억압과 성적 억압을 중층적으로 다룰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는 지금까지 성별에 치중하여 여성들간의 공통성을 강조해 왔던 한국 사회의 페미니즘 성연구와 충돌한다. 또한 이전의 사회 이론들이 그러했듯이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이라는 변수를 강조한지 않고 성 중립적으로 나아갈 경우 결국 남성들만의 이해를 관철시킨다는 점에서 페미니스트들은 우려하고 있다.

<표 1> 성적 위계의 구조(sexual hierarchy)

이러한 우려에 대해 게일 러빈은 성별(gender)과 섹슈얼리티(sexuality)를 구분하되 이 둘을 상호 연관지어 분석할 것을 주장한다.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성별과 섹슈얼리티가 경험적 차원에서는 결합되어 나타날 수 있지만 개념적 차원에서는 성별과 섹슈얼리티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둘을 어느 하나로 환원하거나 어느 하나를 다른 하나의 부차적인 범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Rubin, 1984). 이는 여성의 성적 억압을 여성이라는 범주로만 분석해서도 안 되고 동시에 섹슈얼리티의 하위 변수로 여성을 포함시키거나 여성이라는 범주를 완전히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뜻한다. 아직도 남성

좋은 성/자연스러운 성/ 정상적인 성/바람직한 성	나쁜 성/비자연적인 성/ 비정상적인 성/금지된 성
이성에 관계의 성	동성애 관계의 성
결혼 관계 내의 성	혼외 관계의 성
일부 일치제/배타적 성	난교
생식 중심의 성	생식과 무관한 성
비상업적인 성	상업적인 성
파트너와의 성관계	자위 행위 또는 집단 성행위
상호적이며 관계적인 성	일회적인 성
동일 세대간의 성	다른 세대와의 성
사적인 영역의 성	공적인 영역의 성
반 포르노그래피	포르노그래피
신체간의 접촉과 결합	기구 사용
바닐라 섹스	가학적/피학적 섹스

우월적인 사회에서 여성들은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페미니즘에서는 젠더와 섹슈얼리티가 통합된 관점(gender/sexuality)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젠더와 섹슈얼리티가 통합된 관점에서는 성을 어떻게 연구하는가. 이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 구도로 분석하는 데서 나아가 다양한 성적억압과 여성의 성을 연계시켜 분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페미니즘은 섹슈얼리티의 관점을 여성 억압이라는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성찰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성찰을 바탕으로 페미니즘에 유용한 것들을 수용하여 새로운 이론과 정치학을 생산해야 할 것이다. 이제 향후페미니즘의 성연구는 여성들의 성적 억압의 차이를 드러내야 하고 여성들의 성적 쾌락을 다루어 여성들의 성적 주체성(agency)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4. 성별/섹슈얼리티의 관점에서 한국 사회의 성담론 분석

1990년대 한국 사회는 전통 보수주의적 입장이 지배하고 있고 이에 저항하는 페미니즘, 성해방론, 동성애 해방론 등이 함께 존재한다. 이와 같이 다양한 성에 대한 담론들에는 본질주의적 입장에서 여성의 성적억압을 당연시하는 견해도 있고, 성별의 문제보다는 성적인 억압의 문제를 더 중시하는 입장들도 있다. 이제 페미니즘은 이러한 성담론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이들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져야 하는지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작업을 위해 성별/섹슈얼리티의 통합된 관점이 유용한 분석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성별/섹슈얼리티의 관점에서 한국 사회의 성담론을 평가하고 향후 한국 페미니즘에서 여성의 성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1) 전통 보수주의

한국 사회에서 지배적인 성담론은 유교에 기반을 둔 전통적 도덕주의 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유교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를 본질화하면서 남자는 양으로 여자는 음으로 대비시키고 있다. 유교는 음과 양의 조화를 강조하지만 양이 음을 다스리는 것을 원칙으로 삼기 때문에 결국 남성은 성적으로 우월한 존재로, 여성은 성적으로 지배당해야 하는 존재로 위계화한다(심영희, 1996).

뿐만 아니라 유교에서는 성이 개인의 쾌락이나 욕구 충족보다는 가족을 구성하고 유지시키는 것이라고 보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유교적 관점에서 성은 쾌락보다는 생식과 일차적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관점을 수용하고 있는 전통적 도덕주의 입장은 이성간의 배타적인 성관계, 즉 결혼 내에서의 성만을 규범적 이고 도덕적인 성이라고 제시한다. 우리 사회의 대부분은 이러한 규범을 당연시하고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성별/섹슈얼리티 관점에서는 전통 보수주의 담론이 너의 차이를 본질화시키고 이에 따라 여성의 성적 억압을 정당화하는 데 대해 도전해야 한다. 그리고 보수주의 담론이 표면적으로는 성별 중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도 비판해야 한다.

보수주의 담론은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본질화하여 남성은 강한 성적 힘을 가지고 있으나 여성은 그렇지 못하다고 전제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제에 근거하여 여성의 성적 권리를 무시하고 여성을 모성에만 국한시킨다. 그런데 보수주의 입장은 이러한 관행을 자연의 섭리에 따른 당연한 이치라고 정당화하면서 이에 대한 어떠한 도전도 수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성별/섹슈얼리티에 기반을 둔 페미니즘의 성연구는 이같이 남녀의 차이를 본질화하고 자연화하는 데 도전해야 할 것이다. 남성다움은 강한 성적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고 여성다움은 가족과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 정절을 지키면서 남성의 아이를 키우는 것이라는 논리는 자연의 섭리가 아니라 권력을 가진 남성들이 그들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 만들어 낸 장치일 뿐이다. 따라서 페미니즘은 남성 우월/여성 비하로 이어지는 보수주의의 본질론적 견해를 비판하는 데 일차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보수주의 담론은 남성과 여성에 대해 전제를 달리하면서 남성과 여성에게 이중적인 성 규범을 적용하였다. 전통 사회에서 남성은 공식적으로는 생식 중심의 성, 결혼 관계 내에서의 성을 따르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축첩이나 매매춘 등이 무방하다고 여겨졌다. 반면 여성들에게는 순결과 정절을 지키도록 강요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여성을 성경험의 유무에 따라 성적으로 조신한 여성과 문란한 여성으로 이분화하는 통제기제를 통해 현대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향후 페미니즘의 성 연구에서는 남성들에게는 성적 인 자유를 무제한 허용하는 반면 여성들의 성적 자유를 제한하는 이중적인 성규범 체계와 여성의 이분화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해야 할 것이다.

성별/섹슈얼리티의 관점은 단기적 인 정치적 유용성을 위해 전통 보수주의와 페미니즘의 결합도 신중히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지금까지 페미니즘의 성연구는 한편으로는 전통 보수주의를 비판하면서도 다른 한 편으로는 이와 결합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전통적 도덕주의 입장이 우리의 성문화를 지배하고 있는 규범이기 때문에 지배 규범 이 허용하는 한 도 내에서 여성의 성적 억압을 문제시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유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결탁은 여성의 성을 팔로서, 아내로

서, 어머니로서의 성에만 국한시킨다. 성별/섹슈얼리티의 관점은 이러한 두 입장이 결합하면서도 충돌하고 있는 지점들을 드러내어 페미니즘의 급진성을 사상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매매춘과 포르노는 이러한 접점을 잘 드러내는 이슈가 된다. 전통 보수주의와 페미니즘은 표면적으로는 모두 반 포르노그래피, 반 매매춘의 입장을 취한다. 하지만 이들이 반대하는 이유에는 차이가 있다. 전통 도덕주의 진영에서는 매매춘과 포르노가 기존의 결혼 관계를 넘어선 성관계를 조장하여 가족을 와해시킨다는 점에서 반대한다. 이들은 포르노는 외설적이고 음란한 성적 이미지를 표현하여 성규범을 문란하게 한다는 점에서 반대하고, 매매춘은 일회적 이고 상업화된 성을 추구하게 하여 혼인과 가족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므로 반대한다.

페미니즘은 이러한 전통주의 입장이 그 이면에서 남성들의 매매춘과 포르노를 즐기기를 필요악이라고 보는 이중적인 경향을 비판해야 한다. 동시에 여성은 왜 매매춘의 서비스 제공자가 되어야 하고 남성은 고객이 되어야 하는지, 왜 남성은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비하시키는 포르노를 보면서 성적 쾌락을 느끼게 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도전해야 한다. 그리고 여성들의 성적 쾌락은 어떠한 방식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지, 매매춘 여성들의 성적 권리는 어떻게 보장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탐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2) 성해방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문학이나 문화 연구에 종사하는 지식인들 중심으로 등장한 저항 담론 가운데 하나가 성해방 담론이다. 성해방 담론은 인간에게 성적 욕망은 해방적인 에너지이지만 근대 자본주의 문명이 사회 통제를 위해 성적 욕망을 억압하게 되었다고 전제한다. 이들에게 적절한 성의 표현은 인간의 자유를 극대화시켜 행복을 가져다주는 원천이 된다. 따라서 성에 대한 모든 금기와 규제를 철폐하고 성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여 성적 쾌락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성적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인간 해방에 이르는 지름길이고 여성해방 역시 성적 자유의 극대화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를 수 없다고 한다.

이러한 입장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마광수는 성이야말로 쾌락과 윤리 이전에 행복

추구권이라는 인권에 관한 문제라고 전제한다. 그리고 성적 쾌락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추구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거짓과 위선에 저항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전통적 도덕주의가 성적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일종의 도덕적 테러리즘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한다. 그래서 이들은 자유로운 성적 표현을 통해 성을 공론화하고 이를 기초로 개인들이 다양한 성적 실천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성해방 담론이 한국 사회에 미친 가장 큰 영향은 남녀 모두에게 결혼이 전제되지 않은 성을 추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물론 한국의 남성들은 비공식적으로 결혼과 무관한 성을 즐길 기회가 많아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성적 자유를 누리는 경향이 있었다. 성해방 담론으로 미혼 남성들의 성적 자유는 더욱 확고하게 보장되었고 여성들의 성의식도 훨씬 개방적이 되었다.

신세대 여성들은 이러한 담론에 호응을 보이기도 한다. 대중 매체에 서는 종종 여성들의 순결 의식 변화를 경쟁적으로 다루고 이를 설문 조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하고자 한다. 한 여자 대학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미혼 여대생 44.8%가 혼전 성관계에 대해 찬성하고 있으며, 실제로 2.7%가 이성 친구와 성관계를 경험하였다고 한다(『동아일보』, 1995년 4월 26일자).

주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에서도 20,30대 주부들 가운데 41%가 남편이외의 남자 친구를 갖고 싶다고 대답하였으며, 57.1%가 배우자 이외의 이성에게 성적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나타났다(시사월간 『원』, 1996년 11월호). 물론 여성들의 개방적인 성의식이 '생각'차원에만 머물고 '실천'으로 이어지는 데는 괴리가 있다고 해도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성의식에 변화가 일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성별/섹슈얼리티의 관점은 이러한 성해방 담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떠한 입장을 표명할 것인가. 이를 위해 성해방 담론이 여성에게 어떠한 기여를 할 것인가와 여성의 성해방을 이루는 데 한계점은 없는가를 비판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비판을 토대로 페미니즘이 앞으로 여성의 성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다.

서구의 성해방론은 20세기 초반부터 시작하여 1960년대를 거치면서 거의 보편화되었다. 서구의 경우 성해방론은 성적 자유의 화보를 사회 구조 변혁을 위한 거점으로 의제화하면서 여성의 성적 이슈를 정치화하는 데 일조하였다. 특히 성해방론은 여성을 옹아매고 있던 순결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결혼과 가족 제도를 비판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리고 여성에게도 성 그 자체를 즐길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해 주고 성과 재생산을 분리시킬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로써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성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마련되었고, 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인식하고 성적 주체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기존의 성적 억압 체계에 도전한 성해방 담론은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더 가중한 억압을 받아 왔던 여성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성에 대해 실천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런

점에서 페미니즘이 성적 금기에 저항하는 성해방 담론을 수용하는 것은 유익하다. 하지만 페미니즘은 성별/섹슈얼리티라는 관점에서 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페미니즘은 성해방론이 성을 해방적이고 순수한 에너지와 같은 긍정적인 본질로만 봄으로써 섹슈얼리티의 영역에서 작용하는 권력 관계들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는 점을 비판해야 할 것이다. 섹슈얼리티는 그 자체가 이미 권력이 작용하는 영역이자 권력의 효과가 발현되는 영역이다. 하지만 성해방론은 이를 간과하고 있다. 그래서 단순히 성적 금기를 제거하여 다양한 성적 실천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 자체로 성해방을 이룰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는 성해방이 그들의 주장처럼 여성에게 진정한 해방을 가져다주었는가 살펴보면 쉽게 드러난다. 남성 우월 체계의 사회에서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를 당연적인 성으로 은폐하는 경향이 있다. 즉 여성이 남성의 성적 도구가 되어 비인간화되는 것을 정상적인 성관계라고 보는 것이다. 성해방론은 이러한 지배의 성애화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럴 경우 성해방은 여성을 위한 해방이 되지 못하고 남성을 위한 성해방에 그치게 될 우려가 있다.

김완섭의 「창녀론」은 이러한 성해방론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 준다. 그는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순결 이데올로기가 여성의 성적 해방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해방에 가장 핵심적인 걸림돌이 된다고 본다. 따라서 여성들이 순결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성적 욕망을 추구할 수 있는 '창녀'가 될 것을 요구한다. 그렇게 되면 가부장제 체계는 와해되어 여성들이 진정한 해방에 이를 수 있으리라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왜 '여성만'이 창녀가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여성 해방을 위해 여성은 '창녀가 되는 길만'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데서 보면 그의 주장은 남성들의 성적 쾌락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그는 남성은 '배설욕'과 '파종본능'을 가진 반면 여성은 본성적으로 수동적이므로 여성이 창녀가 되는 것은 숙명적이라고 한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의 성이 상품화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적으로 수동적인 여성들이 억압적이고 착취적인 창녀라는 일을 통해서 여성 해방에 이를 수 있는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성해방론은 성의 해방을 통해 여성이 인간해방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우리 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보면 과연 그런가 하는 의문이 든다. 성해방론이 등장한 이후 여성은 남성을 성적으로 자극하고 적극적인 성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여성 잡지들은 여성이 남성의 성적 쾌락을 증대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을 강요한다. 여성은 미혼 여성, 기혼 여성 할 것 없이 모두 남성이 원하는 섹시한 몸매를 갖추어야만 한다. 그리고 남성의 정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비방을 습득해야 하고 남성의 성적 쾌감을 증대시킬 수 있는 테크닉을 갖추어야만 한다. 이제 여성들은 평상시에는 정숙한 요조숙녀처럼 보여야 하고 침실에서는 포르노 배우처럼 되어야 하는 이중 곡예를 해야 한다.

때로는 여성의 성적 극치감이 중시되지만 이것도 여성들을 위한 것은 아니다. 단지 여성을 성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다는 남성적 능력을 확인시켜 주기 위한 것일 뿐이다.

성별/섹슈얼리티의 관점에서 보면 성해방론은 이중적인 성규범에 도전하여 여성의 성적 욕망을 인정할 수 있게 하는 데 기여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페미니즘은 기존의 성적 관행에 내포되어 있는 남녀의 불평등한 관계에 대해 조망해야 한다. 이러한 성찰을 통해 페미니즘에서는 성해방론을 단순히 성적 금기 해소의 차원에서만 논할 것이 아니라 피임, 임신, 낙태, 미혼모와 연결시켜 논의해야 한다. 아울러 결혼을 벗어난 성행위나 출산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불식하고 여성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 그리고 사회 복지 체계를 통한 지원 등과 병행하여 논해야 할 것이다.

3) 동성애 해방론

한국 사회에서는 1990년대 들어오면서 동성애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했다. 컴퓨터 통신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논쟁이 무성해지고, 대학가에서는 동성애자들의 조직이 구성되어 언론에 보도되었다. 최근에 와서는 동성애 영화제가 합법적인 행사로 성황리에 치러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한국의 성인 남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동성애 욕구를 느낀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35%였으며, 일반인들의 편견과는 달리 화이트칼라 전문직 동성애자가 다수라고 한다(『동아일보』, 1998년 6월 30일자). 이는 1948년과 1953년의 미국 Kinsey 보고서에서 알려진 남성의 37%, 여성의 13%에 비하면 미약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도 동성애자들의 존재가 점점 더 가시화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하지만 한국 사회가 아직 성에 대해 폐쇄적이고 생식 중심의 이성애가 강력한 곳이므로 많은 동성애자들이 여전히 자신들의 정체성을 밝히지 못하고 이중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인들 사이에서 동성애에 대한 관심은 동성애를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논란을 벌이는 데 있다. 동성애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동성애는 일종의 성적인 기호의 문제이며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논하기보다는 삶의 한 형태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성애란 도착이나 변태와 같은 일탈적인 성이 아니라 동성애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성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동성애가 동일한 성 사이의 성행위라는 점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성적 정체성의 혼란을 주고 가족, 혈통과 연관된 성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여성신문』, 1996년 2월 9일자).

그러나 동성애 해방론자들은 동성애를 단지 성적 소수자들의 특수한 기호로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이성애 제도 자체에 대해 비판하는 급진적인 성정치학을 표방한다. 이성애 중심주의는 이성애자들간의 생식을 위주로 하는 성을 자연적이고 정상적인 성으로 규정하여 동성애 공포증을 야기하고 동성애자들을 주변화한다. 따라서 동성애 해방론자들은 규범적

이성애를 벗어나 다양한 성적 관행들을 인정할 것을 강조한다.

그리하여 이들은 이성애 중심주의의 보편성과 절대성에 도전하면서 성적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퀴어 이론으로 나아간다. 퀴어 이론이란 남성과 여성, 이성애자와 동성애자, 게이와 레스비언을 대립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이성애의 규범성을 해체하려는 이론이다. 이는 남성과 여성, 동성애와 이성애와 같은 정체성들은 고정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am로 일관되고 경계가 분명한 범주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러한 고정된 범주에 기반을 두고 동질성을 가진 저항 운동을 거부하고 각 주변화된 집단들간의 유동적이고 일시적인 연대를 통해 성적 위계화에 도전하고자 한다. 이런 점에서 이들은 여성이라는 집합적 정체성에 근거하여 성적 저항 운동을 하는 페미니즘에도 도전하게 되었다.

성별/섹슈얼리티의 관점에서 보면 동성애 해방론이 주장하는 이성애 제도 비판과 범주의 해체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 입장을 가져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한국의 페미니즘에서는 남성을 성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우선시하게 만드는 이성애 제도에 대한 비판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아직도 페미니즘은 이성애자 여성의 이해를 보편적인 여성의 이해로 간주하고 성적 소수자인 레스비언의 역할을 가시화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성애 제도(heterosexuality)란 단순히 성적 선호(sexual preference)로서 이성간의 성결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나 가족 제도, 고용 관계, 성별 이데올로기, 성규범 및 법 등으로 작용하는 일련의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이성애 제도는 성의 영 역뿐만 아니라 가사 노동, 사회적 노동 등의 조직화에 영향을 미치면서 남성이 여성에게 경제적 및 성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한다. 이로써 여성들을 남성 중심적인 성의 주변부에만 머무르게 하고 이류 시민으로 만든다. 남성 중심 사회에서는 이러한 이성애 제도를 여성에게 강요하고 있으므로 페미니즘에서 강제적 이성애에 대한 도전은 필수적이다.

페미니즘에서 이성애에 대한 도전은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불평등하게 만드는 것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성애 제도에 의해 동성애 공포증이 야기되고 이로써 동성애자들을 억압하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할 수 있다. 하지만 이성애 제도를 남녀의 구도에서만 보면 레스비언도 여성으로 동일시하여 동성애자로서 받는 억압을 약화시킬 수 있다. 반면 동성애 해방론에서 이성애 제도에 도전하는 것은 여성뿐만 아니라 동성애자, 미성년자, 노인들의 성까지도 주변화하는 측면을 강조한다. 성별/섹슈얼리티의 관점에서 본다면 성별 위계뿐만 아니라 성적 위계까지 교차시켜 이성애 제도를 비판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페미니즘에서 이러한 입장을 지향한다 해도 동성애 해방론에 대해 성별의 관점에서 비판적인 태도를 지켜야 한다. 사실 현재 시점에서 우리 사회의 동성애 해방론에 대해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는 우리 사회의 강한 동성애 공포증 때문에 동성애자들이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웠고 그 결과 이들의 경험에 대한 정보가 많이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해 보면 우리 사회의 동성애 해방론은 게이와 레스비언 모두의

입장을 대변하기보다는 게이 정치학이 중심이 되는 경향이 있다. 우리 사회에서 급진적인 정치학을 주장하는 동성애 해방론자들은 주로 지식인 남성 동성애자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이다. 언론에서 다루는 동성애에 관한 기사는 남성 동성애자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며 레스비언의 존재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래서 마치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자는 모두 남자들인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레스비언은 게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가시화되고 있다. 여성의 성적 권리 주장이 어려운 한국의 상황에서 레스비언들은 상대적으로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어렵다. 게다가 성차별적 고용 구조는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어렵게 만들고, 레스비언들의 주장을 대변할 수 있는 지적 집단을 구성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레스비언은 가시화되기 어렵다. 따라서 페미니즘에서는 이같은 여성으로서 당하는 레스비언들의 경험을 그들이 동성애자로서 당하는 경험과 교차시켜 분석해야 한다.

이러한 경향은 남성/여성, 이성애/동성애, 게이/레스비언의 고정된 경계를 허물고 성적 소수자로서 함께 연대할 것을 주장하는 동성애 해방론이 실제로는 게이로서의 정체성을 가장 우선시할 수 있는 위험을 가져온다. 그럴 경우 지식인 남성 동성애자가 우선시되고 노동 계급의 동성애자나 레스비언 및 여성들이 배제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페미니즘에서 비판하는 이성애 제도의 남근적인 이미지나 남근이 갖는 권력에 대한 도전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페미니즘에서는 성적 소수자의 성이 해방되면 여성의 성적 차별도 해결된다고 보는 성중립적 입장이 남성의 권력을 그대로 유지시킬 위험이 있음을 계속해서 지적해야 할 것이다.

5. 성별/섹슈얼리티의 통합 : 새로운 페미니즘 성연구의 분석들

성별/섹슈얼리티가 통합된 관점에서 기존의 성담론들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면 향후 페미니즘의 성연구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여성들의 성적 억압을 다루어야 할 것이다. 성별/섹슈얼리티가 통합된 관점에서 성을 연구한다는 것은 앞으로 페미니즘에서 여성들의 다양한 성적경험의 맥락을 드러내고 여성들의 성적 주체성을 고양시키는 데 관심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1) 여성들의 다양한 성적 차이 드러내기 : 맥락성과 다원성

여성들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구도에서 동일성을 갖기는 하지만 억압의 정도나 내용 등은 여성들이 처한 사회적 맥락, 즉 결혼 여부, 성적 경험의 유무, 계급적 위치, 성적 선호, 연령, 종교, 지역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결혼 관계 내에 있는 여성의 성적 억압과 매매춘

여성이 받는 성적 억압은 그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다. 또한 이성애 관계 내에 있는 여성과 레스비언 여성의 성적 억압은 사회적으로 차이가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성인 여성과 청소년기의 소녀들의 성적 경험 역시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향후 페미니즘의 성연구는 이러한 여성들의 차이와 각각의 특수성을 드러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그동안 사상되어 왔던 성적 소수자 여성들의 억압을 가시화하고 이들을 침묵시켰던 권력 관계를 밝혀야 한다.

여성들의 성적 경험의 차이를 드러낸다는 것은 다양한 성적 행위 그 자체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그러한 행위를 유발하는 사회적 맥락을 드러내고, 특정한 성적 경험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의미화 되는가를 탐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페미니즘에서는 여성들이 특정한 성적 욕망을 구성하고 특정한 성적 관행을 택하게 되는 것을 사회 규범이나 경제 체제, 가족 제도, 학교 교육 제도, 매스 미디어의 영향, 사회 복지 체제 등과 다중적으로 연관시켜 분석할 것을 요구한다. 이같이 섹슈얼리티와 연관되어 있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들을 드러낼 때 페미니즘에서는 남성 지배/여성 예속을 유지시키는 다중적인 권력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페미니즘의 성연구에서 여성들의 성적 경험의 다양성과 차이를 다룬다는 것은 남성의 성적 욕망이나 성적 경험 역시 같은 차원에서 다룬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의 성적 욕망과 성적 정체성의 구성 과정은 남성적 성의 구성 과정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따라서 페미니즘에서 남성의 성을 다루는 것은 필수적이다. 성별/섹슈얼리티의 관점에서 보면 남성의 성 역시 본능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 속에서 구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남성을 본질적으로 성적 가해자이자 성적 착취자라고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어떠한 사회적 조건 아래에서 어떠한 집단의 남성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특정한 성적 경험들을 구성하게 되는지를 밝히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구성된 남성적 성과 여성적 성이 어떠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게 되는지를 밝히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남성들이라고 해서 모두 동일한 성적 정체성을 갖는 것도 아니고 동질적인 성적 경험을 하는 것도 아니다. 즉 모든 남성이 성폭력을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남성이 매매춘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때로는 남성이 성폭력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남성 중에서도 강력한 성적 능력을 지녔거나 성경험이 많을수록 남성답다는 규범을 수용하거나 강제적인 성행위가 정상적인 성관계라고 믿을 때 쉽게 성폭력을 범한다. 또한 나이가 어리거나 위계 관계에서 하위에 속하는 경우 또는 여성적 특성을 많이 가진 경우는 남성애 의해 성폭력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성별/섹슈얼리티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남성들의 성적 차이를 구성하는 맥락을 드러내는 것 역시 중요하다.

페미니즘에서 여성(또는 남성)들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게 되면 이론적으로 다원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따라서 페미니즘의 성연구는 특정한 여성(또는 남성)의 성적 억압을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지식(the truth)으로 만들어 모든 여성(또는 남성)에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다양한 맥락에서 얻어진 지식들은 그 맥락에서만 의미를 갖는 국지적이고

부분적인 지식(partial knowledge)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즉 이성애적 결혼 관계 내에 있는 여성들의 성적 억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매매춘 여성이나 레스비언의 성적 억압을 설명하려 해서는 안 되고, 매매춘 여성이나 레스비언 여성의 성적 억압으로 다른 여성들의 성문제를 설명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각각의 지식들은 그들이 처한 상황과 입지에서 나온 특수하고 부분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각각의 여성들에게서 얻어진 지식을 모두 올바른 것이라고 수용해서도 안 된다. 페미니즘에서는 각각의 부분적인 지식들을 항상 여성 억압이라는 차원과 연결지어 비판하고 성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이성애적 결혼 내에 위치한 여성들은 이성애 결혼 제도가 여성에게 한 남성의 아내이자 자녀의 어머니인 역할만을 강조하는 것을 비판해야 한다. 레스비언 여성들은 동성애자로서 성적으로 주변화되는 것에만 일차적 관심을 두기보다는 이를 여성으로서의 억압과 함께 문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호간의 비판적 성찰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페미니즘의 성연구는 성별을 문제시하지 않고 성적인 억압만을 문제시하는 다른 섹슈얼리티의 진영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페미니즘은 섹슈얼리티의 진영에서 성적 위계 구조에 도전하는 것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성별의 문제를 다루지 않음으로써 여성으로서의 특수한 억압을 다루지 못하는 것도 비판해야 한다. 이러한 비판적인 성찰을 통해서만이 여성들은 성적으로 억압을 받는 다른 범주의 집단들, 동성애자나 청소년, 노인들과 연대할 수 있다.

2) 여성들의 성적 쾌락을 주장하기 : 성적 주체성의 강조

이제까지 한국의 페미니즘에서 여성의 성을 다룰 때는 성적인 위험(sexual danger)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한국의 페미니즘은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여성의 성이 강제적이고 착취적인 대상이 되어 왔다는 사실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은 여성의 성적 쾌락을 최소화하고 여성의 성적 쾌락을 탐구하는 것을 사소한 것으로 만들었다. 그 결과 여성은 다치기 쉽고 성에 대해 무지하며 수치스러워한다는 이데올로기를 강화시켰다.

이제 성별/섹슈얼리티를 통합시켜 여성의 성을 분석하게 되면 여성의 성적 쾌락(sexual pleasure)을 함께 드러낼 수 있다(Vance, 1984). 여성의 성적 쾌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성들이 성적 주체성(agency)을 찾는 데 필수적이다. 페미니즘은 여성의 성에 대해 한층 더 심층적인 탐구를 하여 여성에게 성적으로 쾌락을 주고 여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경험들을 다루어야 한다. 여성들에게 친밀감을 주는 경험들, 여성들의 감성을 만족시키며 인간 관계를 결속시키는 경험들, 그리고 여성에게 힘과 주체성을 갖게 하는 성적 경험들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은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일상적 삶에서 여성의 성적 위험과 성적 쾌락은 뒤섞여서 나타나는 예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여성들의 포르노 보기가 이러한 예에 해당한다. 기존의 포르노는 남성의 성적 쾌락을 위해 여성을 극단적으로 사물화시켜 재현하고 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포르노를 처음 볼 때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성에 대해 혐오감을 갖게 된다고 한다. 하지만 일부 여성들은 포르노를 보면서 이제까지 부정해야만 했던 여성의 성적 욕망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또한 10대와 20대 여성들은 포르노를 통해서 성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어 성적 무지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여성의 포르노 보기를 성적 위험으로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성적 쾌락으로 보아야 하는가? 실제로 이를 명확하게 판가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페미니즘에서 여성의 성적 쾌락을 다루기 위해서는 이 둘 사이의 애매하고 모호한 경계를 기술적으로 잘 다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여성들이 억압적인 경험을 쾌락이라고 말하는 것을 허위의식 때문이라거나 무엇인가를 혼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어떤 요소가 여성에게 쾌락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위험이 될 수 있는지를 분류하고 종합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성들이 아무 포르노나 보고 성적 쾌락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여성이 쾌락을 느끼는 경우는 주로 친밀성과 상호성이 전제된 성관계가 재현될 때이다. 포르노에서 여성이 지나치게 파편화된 몸으로 묘사되거나 폭력적으로 다루어질 때 여성들은 위험을 느낀다. 반면 남성들은 여성을 비하하거나 학대하는 묘사를 보고 쾌락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따라서 페미니즘에서는 여성의 성적 쾌락을 남성의 그것과는 구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성의 성적 쾌락을 남성의 시선으로 만든 포르노를 통해서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관점에서 여성들의 생생한 경험을 드러내면서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여성의 성적 쾌락을 다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소가 여성에게 힘을 주고 삶을 생동감 넘치게 하고 흥미 있게 하는가를 규명해야 한다. 그리고 여성들이 이러한 요소들을 어떠한 조건에서 어떻게 통제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여성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그에 따라 여성들의 성역사(sexual history)를 발굴하고 복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성들의 성적 쾌락을 성기 삽입의 행위에만 고착시켜 찾기보다는 성에 대한 사고, 성에 대한 환상, 감성 등과 상호 연관 짓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페미니스트 저널에서 여성의 오르가슴에 대해서 다룬 것은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의 성적 쾌락을 여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발견해 보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기사는 여성들이 성적 쾌락을 느끼지 못하고 강박적으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검열해야 하는 상황을 남성 지배의 산물이라고 비판한다. 그리고 여성들에게 질 오르가슴만을 강요하는 것 역시 여성의 쾌락을 남성의 욕망 법칙에 따라 규정하려는 남근적 권력의 음모라고 폭로한다. 이러한 비판에서 나아가 이 글은 여성들 스스로 쾌락을 추구해 나가는 새로운 성에 담론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한 예로 음핵 오르가슴과 질 오르가슴을 동시에 즐기기, 남성에 의

존하지 않고 자위(auto-eroticism)를 통해 쾌락을 추구하기, 그리고 성기 삽입만이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성적 만족을 느끼기 등을 들고 있다. (『페미니스트 저널 이프』, 1998년 겨울호).

페미니즘에서 여성의 성적 쾌락을 보지 못하거나 성적 쾌락을 가져다주는 근원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여성의 성적 주체성은 찾기 어렵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성적 쾌락을 발견하고 주장하는 일은 쉬운 작업이 아니다. 이는 아직까지 여성이 성적 주체가 되어 여성의 진정한 쾌락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이 성적 욕망과 쾌락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면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이라고 단정짓는 경향이 있다. 여성들은 이러한 성문화에 도전하면서 여성의 성적 쾌락에 대해 진솔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이야기해야만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여성의 삶에 힘을 실어 주는 지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성별/섹슈얼리티라는 관점에서 한국 페미니즘에서 성 연구의 현황을 점검해 보았다. 현재 한국의 페미니즘은 페미니즘 진영에서만 아니라 외부 진영에 의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요청 받고 있는 상황이다. 페미니즘은 내부적으로는 여성들의 차이를 드러내고 여성들의 주체성을 확보할 것이 요구되는 반면, 외부적으로는 급진적인 성정치론자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페미니즘은 이러한 요구에 직면하여 여성이라는 범주에만 국한하여 편협한 이론과 정치학을 고집하기보다는 좀더 열린 이론과 정치학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때로는 불명확하고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고 비판받을 수 있다. 아니면 너무 모호하고 갈등의 소지가 많다는 불평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페미니즘이 다원성을 수용하면서도 끊임없이 여성의 입장에서 성찰한다는 것은 페미니즘에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게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페미니즘은 사안마다 논쟁과 타협의 가능성을 열어 놓을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한층 더 민주적으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학생위원회로 오세요!

여학생위원회의 역사!

70년 총여학생회가 최초로 건설되고, 회-복 논쟁에 의해 6대 총여에 이르러 막을 내렸다. 이후, [여성문제연구회]에 참여한 여학생들이 모여 1대 여학생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리고, 인자문제나 여성인권 같은 등의 기반의 바탕으로 인해 3대 여회에서 다시 해소를 맞게 된다. 이후 76년 4대 여학생위원회가 건설되고(마찬가지로 인자들은 모두 [여성문제연구회]를 통해 오아진 사람들이었다.) 현재 7대 여학생위원회에 이르게 되었다.

여학생위원회는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일반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만든 고대내 여성운동단체입니다. 여의 뿐만 아니라 고대내 여러 여성운동단위(학회, 소모임, 여학생회, 여성학 언론기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학생위원회는 학내의 남성중심적 문화와 구조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고대의 성평등한 문화의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학교들의 여성운동단위와 사회 여성운동 단위들과의 연대사업을 통해 사회의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의 양상들을 변화시켜나가기려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혼자서 여성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눌 상대를 찾고 싶지는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여학생위원회는 않지만, 어떤 고민들을 진행하고 있을 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다양한 자료와 함께 할 수 있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열려있는 공간을 지향합니다.

여성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 언제든지 찾아 오십시오.

여학생위원회와 함께 풀어갑니다.

Tel : 3290-1844 (이우누리) : 고대의원

이메일 : kuwom@nownuri.net

조 여성과 노동 조

여성의 실업권을 말한다.

강사: 안윤정
(이대 여성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일시: 5월 27일 늦은 5시
장소: 제 2학관 소극장

여성들의 실업권을 위하여

안윤정(이대 여성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1. 여성들은 실업의 안전판인가?

초기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은 여성의 가사노동이 시장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면서 여성이 가정에 머물러 가사노동을 전담하고 있는 것이 자본의 이익증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자본주의가 가부장제와 어떤 식으로 연관을 맺으며 작동하고 있는지 밝히지 못했다. 이를 발전시킨 후기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은 여성은 가정, 남성은 생산이라는 성별분업과 노동시장에서의 남성 지배적 직업분리는 단순히 자본주의 때문이 아니라 가부장제와 자본주의가 연합한 결과임을 시사하고 있다. 여성을 가정에 머물게 함으로써 남성들에게 정서적,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러한 가정에서의 불리한 여성의 지위가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구조화되는지 설명하려 했다. 즉, 자본주의는 가부장제와 서로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상호보완하며 공모관계를 유지해 왔던 것이다.

여성의 억압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본주의 체제를 작동하도록 기능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Humphries, 1976) 여성들은 무보수 가사노동의 수행자 혹은 시장에서의 낮은 임금 노동자 등의 역할로 자본주의의 안정성을 위하여 기여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본주의의 최대 약점 중에 하나인 실업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방식들이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는 미국사회의 1930년대 대공황(Blackwelder, 1984)이나 1980년대 초의 경기침체(Kempers and Rayman, 1987)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실업이라는 경제위기에서 여성은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가정으로 돌아가도록 강요받고 때로는 해고의 일순위가

되기도 하며, 실업위기의 가장에게 감정적인 지지를 통하여 가정을 지켜나가는 수호자가 되기도 해왔다. 이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여러 가지의 사회적 편견이 존재하는데, 여성의 일차적인 역할은 가정에 있으며 (Reskin and Hartman, 1986), 여성은 가정의 생계부양자가 아니며 여성의 노동은 일시적이고 잠정적이라는 것이다(Milkman, 1987). 따라서 여성은 실업 이후에도 돌아갈 곳이 있고 생계를 위한 가정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여성의 실업은 완전한 실업의 의미로 심각하게 고려되지 않아 왔다. 즉, 실업의 의미는 전적으로 남성의 개념과 의미로 여겨진 것이다(Kempers and Rayman, 1987). 이러한 조건 안에서 정부의 실업대책은 남성실업자를 모델로 기획되었으며 재취업을 위한 프로그램도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졌다(Blackwelder, 1984).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의 실업은 사회적으로 문제화되기 어려우며 그 심각성은 상쇄되고 만다. 실제 많은 실업 여성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실업이후에도 가정에서 여성의 감정적인 역할과 책임은 오히려 더 많이 요구되고 있으며(Kempers and Rayman, 1987) 이는 한국의 지형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2. 실업할 권리, 노동할 권리

한국의 경제위기 이후 많은 사업장에서는 여성들의 우선해고가 이어지고 있고 여대생들은 졸업을 해도 인턴자리 하나 얻기 어려운 현실에 와 있다. 그러나 우리의 이름은 실업자가 아니라 자꾸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여성들은 세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다.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는 여성들은 주부로, 그리고 미혼의 여성들은 예비신부로, 남편은 없는데 자녀만 있는 경우는 여성가장으로 불려지고 있다. 과연 당신은 어느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가? 우리가 아무리 실업자 속에 우리를 끼어 달라고 발버둥을 쳐도 남성들은 직장만 잃으면 들어가는 그 대열에 우리는 들어가기조차 힘든

- 1) 실업 관련 기사를 작성하는 언론의 태도는 대 국민적 공감을 동반하면서 '남성 가장의 희망찾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아빠 힘내세요', '아빠 사랑해요' 등을 모토로 아내들이 아이들과 함께 남성 가장의 기를 살리기 위해 힘써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실업으로 인하여 남성가장이 얼마나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지를 보여주면서 아내를 남편의 가해자로 묘사하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갑자기 세상을 바꾸는 주체는 주부라고 강조하면서 가정 밖에서는 합리적인 소비를, 안에서는 남성들의 기를 살려줄 것을 눈물겹게 당부하고 있다.

실정이다. 우리는 실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실업대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남편이 있는 주부들은 남편을 취직시키고 미혼여성들은 빨리 고용되어 있는 남성들과 결혼하고 이도 저도 아닌 여성가장들만 좀 도와주면 여성들의 실업대책은 다 완수된 것이다. 그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실업대책에 있어 여성들을 위한 고려는 사실 할 이유도 필요도 없는 것이다.

일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실업권이 주어지는 않는 것은 역으로 우리에게 이제껏 노동권이 없었음을 증명해 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여성들이 전문직에 몇 명 진출했던 것만으로 여성들의 취업률이 한국 역사상 최고치를 차지했던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노동할 권리가 있었다고 믿어왔다. 그리고 의심하지 않았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5인 이하의 소규모의 사업장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면서 그래서 끝까지 일을 놓치 않았던 수많은 여성 노동자를 담보로 이제껏 싸워왔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그나마 여기까지 여성의 권리와 이슈를 제기할 수 있었던 것도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담보도 없어져 버렸고 믿는 구석도 사라졌다. 어쩌면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 동안 우리는 많은 이슈들을 제기해왔다. 가정 내에서의 재산권과 가사분담의 요구, 직장에서의 성희롱, 동일노동 동일임금, 진급에서의 평등, 모성권 등등 일련의 이슈들이 많은 경우 우리들의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제기될 수 없는 것들이었다. 계속되는 각 사업체의 구조조정 속에서 정리해고의 빌미가 어디에든지도사리고 있는 지금, 여성들은 고용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벅차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해고 순위가 높아있는 지금 우리의 밥줄이외에 다른 어떤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3. 통은 더러울 때 치워야 한다.

사람들이 갑자기 합리성과 효율성 그리고 경쟁을 마구 이야기하기 시작

- 2) 실제로 정부의 실업대책에서 여성을 변수로 하는 특정한 정책은 저소득층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1)여성가장 채용장려금제도 2)여성가장 창업지원금제도 3)여성가장 재취업훈련 4)공공근로사업에서의 여성가장 우선선발 등 모두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여성가장이 부각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한 가정의 실제 생계부양자라는데 있다.
- 3) 문유경, 주재선(1997), 「1997 여성통계연보」에 의하여 1996년 경제활동참가율은 기혼 여성이 48.5%, 미혼여성이 49.5%를 차지하고 있다.

했다. 우리의 경제적 위기가 시장의 철저한 원리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거라고 그래서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여 무한경쟁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합리적인 경영을 하기 위하여 정리해고를 하는데 그 원칙은 아이러니하게도 합리적이 않다. 모든 경영진과 직원들, 그리고 노조는 정리해고에 직면해서는 갑자기 모두가 휴머니스트가 되어 가고 있다. 무능하지만 먹여 살려야 하는 식구가 많은 이과장을 자르느니 유능한 미스 김 내지는 일 잘하는 기혼의 박대리를 자르는 것이 잠자리에서 두발 뻗고 잘 수 있는 길이라고 믿는다. 가장 반발할 가능성이 적은 대상, 인지상정이 통하는 순으로.... 상황과 회사 분위기가 이 정도면 유능한 미스 김은 내가 이 회사 아니면 다닐 데가 없나고 더러워서 나오고, 기혼의 박대리는 직장있는 남편 있는게 무슨 죄나고 더러워서 회사를 나온다. 아직 정리해고는 시작되지 않았는데 이미 구조조정은 여성들의 명예퇴직으로 반이 이루어진 셈이다. 통은 무서워서가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고 한다. 처음에는 더러워서 피했던 통들이 이제는 너무 많이 산적해서 이제는 피할 수 없을 만큼 무섭게 변해가고 있다. 여성들이 죽어도 못 나간다고 버티었다면 아마 기업에서는 다른 구조조정의 방식을 고민하기 시작할지도 모른다. 우리가 선심쓰듯 물려났던 행동들이 그들로 하여금 각본대로 진행됨을 만족해하며 다른 방식들을 치열하게 고민할 기회조차 차단시킨 결과를 낳은 것이다. 우리는 좀 모질고 독해져야 한다. 미스 김은 부모들의 눈치밥과 결혼성화에도 원서조차 받아주지 않는 기업을 쫓아 다니며 그리고 박대리는 남편의 실직으로 다시 재취업의 기회를 노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처자식이 많은 이과장과 비교해서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나은 조건, 즉 잘리기에 더 나은 상황이라고 이야기 될 수 없다. 그럴 수 있었던 근거에는 여성들은 돌아갈 가정이 있고 생계를 평생 부양해줄 남편이 있다는 통념이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 통념의 근거가 사라진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해고하기에 좋은 집단일 수 없다. 이제 어느 남성도 우리 사회에서 완전고용을 보장받지 못하며, 벌 수 있는 기회가 닿는 가족 성원의 어느 누구라도 취업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지금 당신은 고용상태에 있는 배우자들을 만날 가능성 그리고 그들이 평생고용을 유지할 가능성은 이제 희박하다. 더구나 실질 임금이 급격히 삭감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단기간 안에 끝나지 않는다면⁴⁾ 한 가정의 경제가 1인의 생계부양자로 유지되기 어렵다.

언제나 경쟁주의 혹은 효율성이 강조되기 시작하면 여성들은 불리해질

- 4) 필자는 개인적으로 물론 이 상황이 계속 가리라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IMF이후 기업주들은 이전에 10명에게 100만원주고 시키던 일을 5명에서 80만원만 주고도 해낼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과연 경제가 풀린 다음에 그래서 회사 사정이 좋아지면 과연 그들이 5명을 더 고용하려고 할까? 아니면 다시 100만원을 주려고 할까?

수밖에 없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공정함과 효율성은 사실 그 동안 남성중심으로 평가되고 만들어진 제도와 형식, 그리고 문화와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이다. 그것의 단적인 예는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해고의 기준은 그 동안 회사의 인사사고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대부분의 기준은 남성들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으며 그 평가를 하는 주체도 대부분 남성들이다. 따라서 인사사고과 성적의 바닥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상사의 눈 밖에 난 남자 직원 몇 명 외에는 모두 여자들이다. 이제 연봉제라는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 제도가 많은 기업에서 도입되기 시작했다. 성과만큼 돈을 주겠다고 하지만 그 성과의 내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누가 평가할 것인지 명확한 기준과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또 다시 여성들에게 불리한 임금제 도입 수밖에 없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남성들에 비해 본 업무 이외에 주번업무와 잡무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면 그리고 곳곳에 놓여진 성차별로 스트레스와 갈등에 더 노출되어 있다면 이미 남성들과의 공정한 경쟁은 기대하기 어렵다.

4.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어쩌면 운이 좋게도 취업이 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우리의 노동시장은 철저하게 성과 학력으로 분절되어 있기 때문에 대졸 남성들이 차지하고 남은 몫에서 예전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여성들이 차지했던 자리를 우리가 얻게 될 수도 있다. 아마 그들은 더 낮은 임금의 직종을 찾아 떠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내 자신이 원했던 일이 아님을 깨닫고 그 모멸감과 부적응으로 회사를 때려 칠지도 모른다. 그리고 좀 더 나은 회사를 찾아 다닐지도 그리고 또 다시 그 행로를 반복하면서 학원강사와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20대를 다 보낼지도 모른다. 그리고 우린 일련의 회사들의 나쁜 기억을 가진 채 우리는 노동시장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치사해서 안 들어간 것이라고

- 5) 작년에 있었던 유명한 컴퓨터회사의 구조조정시 여성직원들이 대거 정리해고가 되었는데 많은 경우 그 인사사고과의 성적으로 이루어졌음이 밝혀졌다. 그 인사사고과의 점수는 그 직원들이 얼마나 성실한가 혹은 열심히 일했는가 보다는 그들의 성에 의하여 혹은 그들의 직책에 의하여 정확한 기준과 근거없이 평가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 6) 조정아(1998), "여성들은 정말 직업의식이 없을까," 『노동과 페미니즘』에서 여성들은 잡무와 임금, 진급, 일상에서의 성차별로 인하여 과중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남성들에 비하여 직장생활을 유지하는데 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위로할지 모른다. 우리는 어쩌면 부자 부모를 만나서 실업자이면서 실업자 아닌 생활을 할 수 있고 아니면 그 무서운 경쟁을 뚫고 원했던 직장을 얻게 될지도 모른다. So What?

내 개인이 운이 역수로 좋을 수 있는 건 다른 어떤 이가 운이 더럽게 나빠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이유는 이 사회가 제로섬(zero-sum)의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 돈을 왕창 얻었다면 다른 누군가는 돈을 썩어 박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세상 이치다. 문제는 이것이 서로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면 좋을텐데 재수없는 사람은 계속 잃기만 하고 운이 좋은 사람은 계속 얻기만 하는데 있다. 근데 또 다른 문제는 재수없는 사람은 우연하게 돈이 없거나 여자가거나 백이 없거나 그런 사람들라는데 있다.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느껴진다.

우리는 그 동안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만큼의 성공한 여성들을 바라보며 수많은 여성들의 좌절과 패배를 잊어왔다. 그들의 성공담으로 패배자들은 할 말이 없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는데도 우리 눈에는 그들이 보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도 성공담의 일부일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그럴 의지가, 그럴 노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맞다.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이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고지는 멀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채찍질을 하며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뒤를 그리고 옆을 한 번 돌아다 볼 것인가?

5. 실업권을 위하여

우리 사회는 경제위기 이후 사상 최대의 실업난을 맞고 있다. 국가도 예상하지 못했고 여성단체를 비롯한 사회세력들도 마찬가지였다. 서로 당황해하면 일년이 넘었는데 국가는 여전히 그 충격에서 헤어날 수 못하고 있다. 초기의 실업대책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다. 그런데도 잘 될거라고 좋아지고 있다고 다시 죽을 힘을 내보내고 호소하고 있다. 사실 우리가 죽을 힘을 안 낸 적이 있었던가? 그 박카스를 입에 몇 개씩 털어 넣으며 한번 더 뛰자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말이다.

어쩌면 지금이 사회단체 혹은 여러 문제제기 집단들이 개입할 여지가 큰 시점일지 모른다. 처음부터 송두리째 한 번 휘청거리고 나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진단이 가능하고 우리 사회의 어디가 풀었는지 그래서 어디를 도려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선포해질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픈 척 하지

않는 국가로부터 어디가 아픈지 그래서 무슨 치료가 필요한지 그 상처를 자주 보여주는 것 그리고 헤집어 놓는 것이다.

누구든 더 현실적이고 세밀한 아이디어를 내놓는다면 그리고 그것을 집행할 실무능력이 있다면 그것이 실현될 가능성이 예전보다 높아졌다. 정부는 사실 누구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무슨 지원을 해줘야 하는지 잘 모른다. 공공근로사업에서 공무원들은 하천의 풀베기, 하천청소를 선호한다. 왜냐하면 어디에서 누가 뭘 하는지 한 눈에 보면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방법을 모르는 가운데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나 주는 것, 혹은 잘 알고 있는 사업 아니면 인력관리가 쉬운 일을 택하는 것이 지금 정부의 실정이다.⁷⁾

예전에도 그랬듯이 국가는 조용한 그래서 위협적이지 않는 대상에는 눈을 돌리지 않는다. 여성들을 아무리 해고해도 그들이 두 다리 뻗고 잘 수 이유는 여성들이 두렵지 않기 때문이다. 실업이후에는 조용히 가정으로 돌아가 한 가정의 아내로, 어머니로, 딸로 숨죽여 줄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는 더 이상 그들이 실업자가 아님을 강요하고 있다. 우리에게 이전 실업할 권리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가 실업할 권리를 세우지 않으면 노동할 권리는 다시 오지 않는다.

참고문헌

- 고용정책과(1999), "99. 1/4분기 고용안정 및 실업자보호대책," 노동부, 1월 12일.
- 남연순(1998), "IMF 1년, 심화되는 남녀차별, 여성빈곤의 현황과 대책," 한국여성단체연합.
- 박숙자(1994), "여성고용시장," 『여성고용 한국사회』, 사회문화연구소.
- 여성고용대책특별위원회(1998), 『구조조정 과정에서 여성고용 악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한국여성단체연합.
- 여성실업대책본부(1998), 『여성실업대책본부 활동백서』,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 조순경(1998), "IMF관리경제 시대의 실업정책 : 문제와 제안"
- (1998), "경제위기와 여성고용정책," 『한국여성학』, 제 14권 2호, 한국여성학회.
- (1998), "민주적 시장경제와 임금적 계층장제," 『경제와 사회』, 여름호.
- 한국도시연구소(1998), 『IMF 이후 도시저소득층의 생활변화와 대응방안』
- 한국여성연구소(1998), 『경제위기와 여성고용정책』

7) 민간연구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활동가의 인터뷰를 참고한 내용이다.

- Blackwelder, Julia Kirk(1984), *Women of the Depression*, Texas A&M Univ. Press.
- Humphries, Jane(1976), "Women : Scapegoats and Safety Valves in the Great Depression" in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ics*, vol. 18, no. 1, spring.
- Kempers, Margot & Rayman, Paula(1987), "The meaning of unemployment in the Lives of Women" in L. Beneria and C. Stimpson(eds.) *Women, Households, and the Economy*, Rutgers Univ. Press.
- Martine & Wallace(1984), *Working Women in Recession*, Oxford Univ. Press, New York.
- Milkman, Ruth(1987), *Gender at Work*, Illinois Univ. Press.
- Reskin, Barbara F. & Hartman, Heidi L.(1986), "Explaining Sex Segregation in the Workplace," *Women's Work, Men's Work*, National Academy Pr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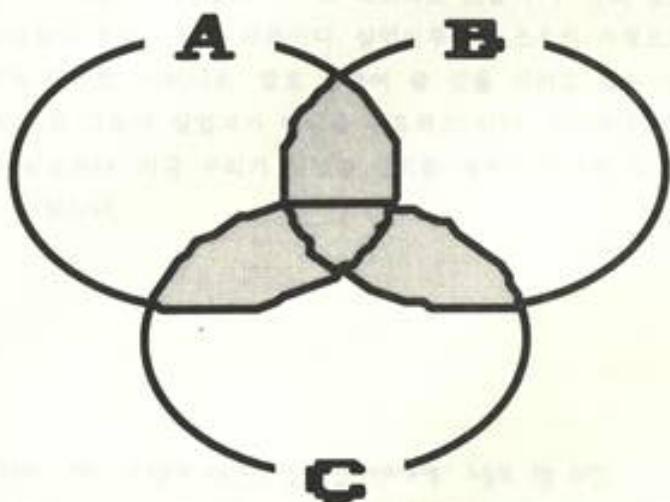


차이의 페미니즘들

말 만들기,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권 수 진(시립대 사회학과 강사, 한국 여성 연구소 연구원)

차이의 페미니즘



강사: 김수진

(시립대 사회학과 강사, 한국여성연구소 연구원)

일시: 6월 3일 늦은 5시

장소: 제 2학관 소극장

『성적 차이와 페미니즘』(뤼스 이리가레 외, 권현정 역, 공감 1997)과 『다른 목소리로-심리이론과 여성의 발달』(캐롤 길리건, 허란주 옮김, 동녘 1997) 개정판은 우리로 하여금 '차이'를 둘러싼 페미니즘의 조류들을 접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를 제공해준다. 우리 사회에 '차이의 페미니즘'이라 알려진 것은 사실 차이의 페미니즘'들'이다. 이것들은 하나의 입장으로 통일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상이한 이론적 배경을 가졌거나 비슷한 이론적 계보에 속해 있다하더라도 중심 개념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이 두 책을 통해 서로 다른 맥락에서 차이의 페미니즘을 주창하는 대표적인 논자들의 주장을 비교해볼 수 있다. 길리건(Carol Gilligan)의 책은 이미 널리 읽히고 알려졌기에 이 글에서는 자세한 소개를 생략하고 앞의 편역서를 중심으로 특히 이리가레(Luce Irigaray)와 길리건을 비교해보겠다.

『성적 차이와 페미니즘』은 제목 그대로 성적 차이에 대한 페미니즘의 논제를 다룬 이탈리아와 프랑스 필자들의 글을 모은 편역서로, 하나의 뚜렷한 입장을 가진 페미니즘 이론서는 아니다. 편역자는 20세기 평등주의적 페미니즘이 역사적 선례에 처한 것은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이리가레에 무게중심을 두고 일단의 프랑스 페미니스트들의 직접적인 이야기들을 모았다. 이 책의 주제는 크게 보아 다음 네가지이다. 철학(및 철학사), 맑스주의, 정신분석에 대한 재조명, 그리고 동일성의 정치를 대신하여 차이의 정치에 대비하는 페미니즘 이론.

페미니즘의 평등론적 입장과 차이론적 입장

우선 폴랭의 「철학적 차이들」을 중심으로 '차이의 페미니즘'의 철학적 사유들을 추적해보자. 폴랭은 70년대에 시작된 페미니즘 사상은 여러 조류들-맑스주의, 정신분석학, 형이상학 비판, 구조주의, 포스트모더니즘-에 의존하면서도 철학적 질문에 대한 정치적 접근방법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즉 남녀관계는 남성지배의 권력구조의 한 형태라는 현실에서 출발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권력구조가 어떻게 철폐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해방 후 성적 차이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둘러싸고 입장이 다양하게 나누어진다고 폴랭은 이것을 크게 평등론적 입장과 차이론적 입장으로 구분한다.

맑스주의에 의해 재해석된 계몽주의의 유산으로서의 평등론적 페미니스트들은 씨몬 드 보바르의 계몽자들로 '성(sex)'의 '사회적 구성물', '성별(gender)'에 도전할 뿐만 아니라 성의 현실에 도전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여성들은 노동계급과 유사한 '계급'을 구성하고, 노동계급처럼 지배관계들이 소멸되고 난 후에는 사라질 것이다. 또한 이들은 자연/본성을 불신한다. 자연/본성의 효과와 문화의 효과는 구별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형태의 자연적·본성적 현실은 거부되어야 하며, 따라서 자연/본성은 순수한 주체를 위해 기각된다. 이때 주체는 육체로부터 분리된 자기결정의 주권적인 중성성으로 나타난다. 플랭이 이러한 평등론적 입장을 계몽주의의 유산으로 보는 이유는 그것이 개인들을 단지 추상적이며 동가적인 것으로만 여기며 차이를 지배와 동일시한다는 데 있다. 이는 근대 정치 이데올로기에 공통적인 지평인 것이다.

다른 한편 70년대에 평등론자들과 나란히 발전한 차이론적 페미니즘은 부분적으로 정신분석학으로부터 유래되었다. 이들에게 두 성은 완전히 불가능하게 구별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전략은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여성적 '본성'의 이름으로 부과한 규정을 해제하여 두 성의 적대물 '성적 차이의 윤리'로 바꾸는 것이다. 여성적 '본성'을 부정하면서도 완전히 불가능한 차이를 말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와 관련하여 이들 사이에서 벌어진 논쟁의 맥락은 여성(la femme)과 남성(l'homme), 여성적인 것(le féminin)과 남성적인 것(le masculin)으로 이원화되었다. 남성적인 것이 팔루스(phallus)적인 것, 통일성, 총체화, 도구화로 정의된다면 여성적인 것은 개방성, 비통일성, 무한성, 비규정성, 무제한성으로 정의된다. 그런데 이 이원적 논쟁 맥락은 악순환에 빠질 위험을 담고 있다. 성적 차이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단순히 '사회적 구성물'로 폄하될 수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남성 '일자(the one)'와 여성 '비일자(not one)'라는 이원론적 방식으로 대립시키는 것으로 차이를 정의하는 것은 성의 형이상학으로 되돌아가게 한다. 그러면 차이를 여성적인 것과 남성적인 것의 범주들로 국한시켜야 할 것인가? 플랭은 아니라고 본다. 그렇게 국한하는 것은 남성들과 여성들의 사회정치적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플랭은 이 성적 차이를 하나의 행위-정치적인 동시에 윤리적이고 상징적인 행위-라고 보는 입장으로, 그 문제가 포함하는 악순환적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그녀는 페미니즘의 제1의 목표인 평등이 동일성들의 평등화(결국 현존하는 남성동일성과 유리한)가 아니라 평등한 권리라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하며, 이러한 평등은 또한 개별적이며 집단적인 차이들이 무엇인지 미리 규정하려 들지 않으면서 그러한 차이들을 다루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성적 차이가 궁극적으로 소멸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그 무엇에 의해서도 결정되지 않는다.

가부장제 문화와 성적 차이

플랭이 말하는 행위로서의 성적 차이라는 개념은 과연 가능한 것인가? 우리는 이리가

레의 작업을 그러한 정의내리기 행위의 하나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리가레의 책 중 처음 번역된 것은 『나, 너, 우리』(1990)(동문선 1996)였다. 그 책이 대담과 평이한 에세이들로 자신의 입장을 쉽게 쓴 것이어서 비교적 쉽게 읽힐 수 있었다면 이번 책에 실린 글들은 대개 직접적으로 정신분석을 언급하고 있어서 읽고 이해하는 것이 녹록하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녀가 정신분석을 비판하는 방식과 성적 차이에 대한 논의를 깊이 이해하려면 프로이트와 라캉의 정신분석적 기본 개념들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또한 이 책에 실린 글들은 그녀를 페미니스트 정신분석 비평가로 등장시킨 『검시경: 또 다른 여성에 대하여』(1974) 이후 80년대에 발표된 책들에서 편집된 것이어서 이 글들만을 가지고 그녀의 사유의 궤적을 온전하게 접근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글들을 통해 정신분석에 대한 이리가레의 양가적인 비판의 논지들과 그녀가 주장하는 적극적인 차이의 페미니즘을 위한 전략들을 개괄적으로나마 접할 수 있다.

이리가레가 성적 차이를 새롭게 정의하기 위해 시도하는 전략은 정신분석 내부에서의 비판에 근거하여 가부장제 문화에 대한 정신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가부장제 이론을 해제하고, 아울러 서구문화의 가부장제적 토대를 비판하고 대안적인 변화의 전략들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녀의 정신분석 비판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정신분석은 그 자신의 담론의 역사적·철학적 결정요인들을 간과하고 있으며, 정신분석 자신이 분석할 수 없었던 무의식적 환상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가부장제적이라는 것이다. 즉 "그것은 사회적 질서가 어머니에게 빚지고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회적 질서를 반영한다."

그러나 그녀는 정신분석에 대해 양면적 태도를 취한다. 한편으로는 정신분석의 무의식적인 남성중심적 환상성을 비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정신분석이 여성에게 있어 중요한 근거지라고 본다. 즉 정신분석 일반을 버릴 것이 아니라 여성에게 적절한 정신분석 모델을 이론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리가레가 프로이트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비판하고('정직한 과학자') 라캉학파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비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리가레에 따르면 라캉학파는 그것의 역사적·문화적 결정요인들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자신들이 이미 규정한 무의식의 결정요인들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듣지 못하게 하는 엄격한 틀을 부과한다. 그녀는 라캉학파가 보편적인 것으로 부과하는 상징계는 "당신들의 가상적인 것"일 뿐이라고 하면서, 여성이 존재하지 않는 이 남성적인 가상적인 것을(남성)동성애적(hom(m)osexual)인 것이라고 명명한다.

라캉의 정신분석적 개념들(상징계, 법)이(남성)동성애적인 이유는 현재의 가부장제 문화 자체가 성적으로 '무관심한', 다시 말해서 성적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상징계이기 때문이다. 이리가레의 이러한 진단은 일종의 문화 정신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가부장제에서 여성은 말이나 상징으로 표현되지 않는다. 여성은 이 체제를 떠받치고 거기에 영양을 공급하는 침묵하는 외부, 침묵하는 토대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수세기 동안 서구를 지배해온 소유의 조직화, 철학적 체계들 종교적 신화들 속에서 여성에게 할당된 역할들을 탐문해보면 서구·사회와 문화가 모친살해를 토대로 작동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이리가레는 주장한다.

현재의 문화는 여성을 어머니로, 여성-어머니를 육체로, 그 육체(자궁)를 탐욕스러운 입이나 허수구·팔루스적 위협·재생산의 종속적 기능으로 폄하한다. 그러한 폄하는 남성적 상징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일종의 방어기제이다. "사회적 질서, 우리의 문화, 정신분석 그 자체는 어머니를 이런 식으로 원한다. 즉 어머니는 금지된 채로, 배제된 채로 남아 있어야 한다. 아버지는 어머니와의 육체적인 조우를 금지한다". 그리하여 자본주의-가부장제 문화는 여성-어머니의 육체를, 반드시 재생산에 국한되어 있지는 않은 육체를 육체적인 동일성의 수호자로서 영유하고 착취하고 있다. 가부장제 문화는 어머니에게 진 빚을 무마하고, 어머니에의 의존을 망각하며, 어머니의 역능을 파괴함으로써 남성동성애적 경제를 구축한다. 여기에는 남성들만 있다. 남근을 가진 남성들 혹은 거세된(결핍된) 남성, 결합있는 남성들만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라캉의 '여성은 없다'는 말은 전적으로 옳바르다. 단 "당신들의 가상 속에서는" 말이다. 이렇게 해서 여성은 '당신들의' 상징계에서 남성과의 관계에서만 정의된다. 레비-스트로쓰가 관찰하였듯이 여성은 남성들의 집단 사이를 구분하고 집단 내 형제애적 결합을 위해 교환되는 존재, 교환의 대상이 된다. 여성은 어머니, 처녀 혹은 매춘부로 정의될 뿐이다. 여성은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되지 않으며 사회적 결정에서 아무런 역할을 할 수도 없다. 노동자로서 시민으로서 혹은 정치활동에서 가치를 부여받지 못하는 것이다. 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들이 계속해서 어머니가 되는 것, "사적 소유제 안에서 남성-아버지에게 봉사하고 국가에 봉사하는 기계들이 되는 것"이다.

이리가래는 여성과 남성이 재탄생되어야 한다고 본다. 지금의 문화에서는 두 성 각자의 성적 동일성이 정립되지 못하였기에 남성들이 어머니의 역능을 지배하기 위해 자신의 성기를 권력의 도구로 바꾸었다는 것이다. 이 두 성의 재탄생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남성들이 여성에 대한 의고적인 투사들에서 자유로워질 때, 그리고 여성들이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구별하고 그녀들의 성적 동일성을 발견할 때 두 성은 다시 태어날 것이다. 여성들은 "우리의 성적 동일성, 우리의 욕망들, 우리의 자체애(auto-eroticism), 우리의 나르시시즘, 우리의 이성애, 우리의 동성애의 독자성"을 발견해야 한다고 이리가래는 주장한다. 그 과정에서 해야 할 일은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긍정적이고 자율적인 표상을 문화 내에 만들어내는 것이다.

여성의 성적 동일성과 상징적 자율성을 발견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은 우선 다음과 같은 이중의 윤리적·정치적·문화적 전략을 담아야 한다. 한편으로 우리는 "우리를 단순한 기능으로 한정하는 분업-생산자/재생산자-에 종속된 질서에 의해 지배되는 탈주체화된 사회적 역할인 어머니 역할에 굴복하지 않아야" 하며 "어머니이기를 위해 여성이기를 단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또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우리의 문화의 기원을 위해 제물로 바쳐진 어머니를 다시 한번 죽여서는 안된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가 어머니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세워야 함을 의미한다. 최후의 피난처로서의 어머니적인 전능함에 작별을 고하고 여성 대 여성으로서의 관계를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이리가래가 중요하게 제시하는 과정은 말(parole)하는 것의 시작이다. 여기서 말은 라캉이 아버지의 법의 기능일 뿐

이라고 보는 욕망이 아니라 새로운 욕망하는 말이며, 육체와의 관계들을 결여하지 않는 말이다. 이리가래는 어머니들이 여성일 수 있다면 딸과 어머니, 아들과 어머니 사이에 욕망하는 말의 관계양식이 있을 것이며 이것은 라캉이 말하는 랑그(langue)를 완전히 개조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렇다면 이리가래가 말하는 여성적 동일성이란 무엇인가?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만 가려져 있는 그 무엇, 노력하면 완전히 알 수 있을 어떤 본질(essence)을 말하는 것인가? 이리가래는 정신분석이 그렇듯이 형태학적·해부학적 차이와 섹슈얼리티의 차이 가운데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이 점이 그녀가 영미권에서 쉽게 본질주의자로 취급되는 이유일 것이다. 필자는 거기에 대해 평가할 능력은 없다. 그러나 오히려 이리가래 자체보다는 정신분석과 페미니즘의 만남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 이리가래의 성과는 정신분석에 대한 정신분석적 비판을 시도함으로써 둘이 만나기 위한 새로운 지형을 준비하려 한다는 데 있다. 이리가래는 이 새로운 지형 위에서 여성적 동일성의 개념을 육체 및 섹슈얼리티와 연관시킴으로써 그것을 새롭게 사고해야 할 대상으로 설정한다. 논의의 출발점을 다시 긋는 것이다.

성적 차이와 성별 차이

여성을 새롭게 정의하는 또다른 시도인 길리건의 작업은 이리가래와 여러가지 면에서 비교해볼 만하다. 우리 사회에서는 정신분석적 세례를 받은 페미니즘을 모두 차이의 페미니즘이라는 동일한 묶음으로 이름짓고 있지만, 사실 그때 지칭하는 조류들은 상이한 맥락에 놓여 있다. 이리가래와 길리건을 통해 '차이'라는 용어가 각자의 이론적 지형 속에서 어떠한 의미로 구조화되는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성적 차이와 페미니즘』에 실린 이리가래와 『다른 목소리로』의 길리건이 정신분석과 페미니즘을 관계짓는 방식은 상당히 다르다. 첫 번째 다른 점은 각자가 속한 정신분석의 조류가 다르다는 점에 있다. 이리가래가 프로이트-라캉의 정신분석 논의를 비판하면서도 섹슈얼리티와 언어 문제를 차이 개념의 중심에 놓고 사고하는 틀에 속해 있다면 길리건은 보파르적인 성별(gender) 개념을 중심으로 영국 대상관계학파의 맥을 잇는 초도로우(Nancy Chodorow)의 틀을 따른다. 이것은 성별 또는 성적 차이를 문화적으로 구성되는 문제로 볼 때 그 구성을 어디에서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둘러싼 토론이라고 볼 수 있다.

초도로우의 논의는 전외디푸스기의 어머니-아이의 관계를 연구주제로 삼는다는 점에서 클라인(Melanie Klein)이나 호니(Karen Horney)같은 프로이트 동시대의 여성 정신분석가들의 개념과 주제를 확대·발전시켰지만, 전체적으로는 성별 차이(gender difference)의 지형 위에 있다. 여기서 성별은 "가족구조 내에서 자아형성 과정 중에 획득되는 일련의 역할과 문화적 의미"로 파악된다. 길리건은 생물학적·사회학적 결정론을 비판하면서 성별 차이가 "본성적인 것이고 동시에 문화적인 것"이며 심리적·사회적 및 문화적 질서를

이해하게 해주는 새로운 열쇠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녀에게 차이란 풀어야 할 문제는 인간조건의 불가피한 특성으로 규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여기서 길리건은 '여성 자신의 성숙한 목소리'와 기존 사회에 의해 구성된 '여성적 목소리'를 구별하고 앞의 여성 자신의 목소리가 여성의 다른 목소리, 즉 차이라고 정의한다. 사회가 부과하는 여성적 목소리는 여성이 독립성의 원리와 정의의 윤리에 부딪히면서 본연의 목소리를 잃어버릴 때 내는 소리이며 따라서 여성은 내면적 분리감을 느낀다. 이런 내면적 분리감을 극복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 정의의 윤리와는 구별되는 보편적 원리로서의 보살핌의 윤리를 타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결국 길리건이 말하는 보살핌의 윤리란 초도로우가 말한 관계지향성이 발달하여 형성된 도덕적 기준이며 여성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도덕적 원리라고 할 수 있다. 그녀에게 차이 또는 다른 목소리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구성되었는가는 문제는 더 깊은 질문의 대상이 아니다. 길리건은 성별 차이에 대한 초도로우의 입장을 암묵적으로 유지하면서 보살핌과 달리 차이에 대한 열등한 가치 부여를 비판하고 두 가지 원리 모두에 보편성을 부여하면서 상호공존, 상호 균형적 발달을 제기하는 것이다.

반면 이른바(사실은 각양각색의 입장을 가진) '프랑스 페미니즘'의 차이론은 라캉과의 대결, 나아가 프로이트와의 양가적 관계를 바탕으로 성적 차이(sexual difference)를 개념화하려고 한다. 라캉적 정신분석 담론에서는 성별(gender)이라는 용어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라캉의 관점에서 성적 차이는 "상징계에 속하는 주체를 조건짓고 규정하며 제도화하는 언어학적 구별의 1차적인 형태"이다. 다시 말해 주제 그 자체가 성적 차이에 종속되어 형성된다는 것이다. 성별이론에서는 주체가 전제되고 그 주체가 획득하는 문화적 결정항이 성차인 것으로 나타나는 데 반해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성적 차이가 주제 그 자체를 발생시키는 모태가 된다. 이런 관점에 따르면 우리들 자신은 '사회화'라 불리는 과정에 앞서서 성적 존재로서 문화 속에서 이미 형성되어 있다. 통합된 주체는 성적 차이에 앞서 전제될 수 없으며 주체는 항상 이미 언어의 상징적 질서를 통과하는 성적 차이를 통해서만 주체로서 구성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론적 관심은 성적 차이 자체를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에 놓이게 되며 그 방향은 섹슈얼리티, 언어학적 차원의 상징계와 관련된 논의로 발전하게 된다. 여기서 쉐쥬(H. Citroux), 이리가레, 위티그 등은 각각의 직접적인 분석 개념들과 입장은 상이하지만 이러한 이론적 기반을 공유하면서 라캉과는 달리 두 성이 환원 불가능하게 구별될 수 있다고 본다. 이때 이리가레가 성적 차이의 기원을 해부학적 차이에 두고 있는지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 이리가레는 여성의 주이향성(jouissance)의 독자성을 설명하면서 여성 육체의 형태를 포괄의 원리로 은유함으로써 생물학적 본질론자로 공격받아왔다. 이는 곧 길리건과 이리가레가 놓여 있는 상이한 이론적 지평을 보여주는 두 번째 정점과 연결된다.

육체의 정점은 페미니즘 담론의 뜨거운 감자다. 길리건은 심리발달과 윤리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육체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 길리건에 따르면 남성의 경험은 인간관계의 분리(separation)에 기초하고 이것이 여성들의 경험을 제외시킴으로써 여성들에게는 내

적인 분열(division)이나 단절(dissociation)을 가져왔다. 그러므로 여성과 남성이 본질적으로 다른가라는, 본성인가 환경인가라는 틀은 인식과 인간관계의 관련성을 보지 못하게 한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여성과 남성의 경험의 차이이며 이는 다시 인간관계의 심리적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인간관계의 심리적 차이, 모자·모녀 관계의 이 차이는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길리건은 여기에 대해 직접적으로 답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녀의 논의는 심리적 차원에서의 순환적 설명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즉 남아/여아의 심리적 차이는 어머니의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데, 이때 어머니 자신이 이미 성별화된 심리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이리가레는 가부장제가 이 순환적 관계를 만들어내는 지점을 가부장제가 육체-어머니와 맺는 관계로 설정하고 그것을 정신분석적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리가레에게 어머니, 특정한 성별화된 특성을 갖고 있는 어머니란 남성동성애적 경제에 의해 할당되는 특징이다. 그녀는 가부장제가 자신의 기반인 어머니(여성)의 육체, 나아가 육체 일반을 망각하고 삭제하고 있음을 비판한다. 프로이트가 다형도착적 본능이란 용어로 지칭한 바 있듯이, 정신분석적으로 볼 때 육체 그 자체에는 성별이 없다. 이리가레는 기존의 정신분석이 이(육체와 문화가 겹쳐지는) 본능의 구성을 이미 성별화된 남성의 육체의 입장에서 서술한다고 지적하면서, 나아가 자궁과 태아, 자궁과 유아의 합체와 분리라는 육체적 심금을 이론적으로 문제삼지 않는 점을 통렬히 비판한다. 정신분석의 이러한 이론적 침묵은 육체-어머니를 망각하는 것에 기초한 서구 가부장제 문화의 반영이라는 것이다.

세 번째로 길리건은 발달-적용심리 이론을 유지하고 있는 데 비해 이리가레는 정신분석적인 주체성(subjectivity) 개념에 기대고 있다. 길리건은 콜버그의 도덕발달 단계에 적용되는 정의의 윤리를 보편화·객관화하는 것이 남성중심적 편견이라고 비판하면서 그러한 윤리 개념으로 포착될 수 없는 보살핌의 윤리의 고유성을 드러내고 그에 부응하는 나름의 도덕발달 단계를 제시한다. 자율성과 독립성을 도덕적 성숙의 기준으로 삼는 콜버그와는 달리 길리건은 자아와 타아의 상호의존성을 그 기준으로 가지는 도덕적 성숙 단계를 관찰, 이론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몇몇 여성들이 인터뷰에서 보여주는 비밀관성은 남성적 기준과는 다르지만 길리건이 제시하는 보살핌의 윤리의 발달 단계상에서 최종단계에 이르지 못한 경우로 서술된다. 그러나 이리가레의 주체성 개념은 미성숙과 성숙의 단계를 상징하기보다는 불안정한 상징적 질서와의 통합/어긋남의 차원을 지시한다. 예컨대 여성의 히스테리 증상이나 여성에게 흔히 나타나는 정신병의 언어적 특징은 본래 불안정하게 분리된, 특히 가부장제 문화가 여성에게 부과하는 세계에 여성이 통합되지 않음으로써 나타나는 증상으로 해석되며 남성 정신병에 나타나는 강박증적 언어 사용은 가부장제 문화에서 남성에게 부여되는 위치에 개인이 과도하게 통합된 상태를 보여주는 증상으로 읽힌다.

차이의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들

길리건과 이리가레는 서로 다른 정신분석적 담론의 계보 속에서 차이의 원천을 설명하지만 그들이 제시하는 윤리적·실천적 전략은 비슷한 점이 많다. 즉 차이를 부정적이거나 결핍된 지평의 차원으로 보지 않도록 새로운 차이의 윤리를 만들기 위해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리가레는 그것을 말(parole)의 발견으로, 길리건은 다른 목소리(different voice)에 귀기울이기로 제시한다. 어머니(육체)-딸-아들의 관계를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서구 가부장제 문화의 상징적 경제가 부과하는 랑그를 대체할 말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사회가 부과하는 여성적 목소리를 대체할 여성 자신의 목소리를 끌어내어 들어주는 것, 이 두 가지 길은 서로 다른 곳들을 경유해와 앞으로도 다른 방향을 향해 갈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완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것은 아니다. 아마도 실천적인 장에서 그들은 만나고 악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일까? 이들에 대해 페미니스트들은 비슷한 양상으로 비판한다. 길리건에 대해서는 그녀가 정의의 윤리와 보살핌의 윤리를 구별하면서 남성과 여성의 심리적 발달과정을 동일한 가치론적 차원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보살핌의 윤리를 여성의 윤리로 고정시켜서 전통적인 역할을 찬양하는 편견을 강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길리건이 분석한 여성들이 백인, 중산층 중심이어서 계급이나 인종, 역사 같은 변수를 무시하는 일반화의 오류가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이리가레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페미니즘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정신분석적 페미니즘 안에서도 비판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윌트포드(M. Whitford)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상황적 측면에서 보면 그녀의 글이 시적이고 상징적이어서 독해가 어려워 「검시경」이 번역되기도 전에 '본질주의자'로 취급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페미니즘이 정신분석에 대해 가지는 의혹 일반 그리고 여성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전통적인 성별구분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신분석적 페미니즘, 특히 라캉을 수용하는 쪽에서는 이리가레의 논의가 전의디푸스 단계로 퇴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비판한다. 이 퇴행은 불가능한데, 이미 주체는 언어적 단계를 거치면서 상징적으로 거세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판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남겨진 과제이다. '차이의 페미니즘들'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페미니즘 진영이 덮어버리고 있는 불씨이기 때문이다. 부단히 변신하는 자본주의-가부장제 사회의 현상들에 압도되어 현상의 형이상학에 빠지기 쉬운 지금 문제는 이론의 과잉이 아니라 이론의 결핍이 아닐까?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불씨를 해집어 논란의 불을 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지도 모른다.

운동의 주체에 대하여 :

'주변성'이 지닌 힘과 '다름'의 정치학

조혜정(성찰적 근대성과 페미니즘 중)

왜들 움직이지 않는가?

나는 이 글에서 여성 해방 운동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주체적 자아'의식 내지 역사 쓰기에 대하여 말하려고 한다.

1998년에 「한국의 여성과 남성」이라는 책을 마무리지으면서 나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이라는 주변적 위치가 갖는 변혁 잠재성을 강조하였다. 지배 문화에서 소외당해온 여성이 일단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지금까지 '길들여져 온 것과는' 다른 눈으로 사회 현상을 보기 시작하고, 그래서 새로운 주체적 자아를 만들어 가게 된다고 했다. 그러한 새로운 자아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바로 사회 변혁의 과정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 잠재성을 세 차원으로 나누어서 말하였는데, 첫째는 기존의 중심적 체제를 비판적이고 총체적으로 볼 수 있다는 주변적 위치가 갖는 이점이었고, 두 번째는 '중심'에 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갖게 되는 '공공의 악덕'에 '덜 오염될 가능성'이었다. 세 번째는 억압당한 체제를 바탕으로 다른 종류의 억압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 즉 어느 차원에서든 억압을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다른 상황에서 발생하는 억압 역시 잘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나는 이런 식으로 '주변 집단'을 다루게 되면서 내가 더 이상 '여성'이라는 범주가 지닌 억압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범주에 드는 이들의 해방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계급적 소외권 신분제적 소외권 제국주의적 식민화에 의한 소외권 상관 없이, '중심'에서 배제되어온 주변 집단은 모두 이런 변혁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80년대의 권위주의적 체제가 좀 풀리고 '계급 모순'과 '민족 모순'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상당히 경직된 사회 운동 경험에 대한 성찰이 일기 시작할 즈음에는 사회 운동을 하고자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성'을 중심으로 한 '여성주의적 방법'의 유용함에 대해 알게 될 것이라고 나는 믿었다. 그러나 사회 분위기는 좀 풀리는 듯한데도 여전히 그런 성찰적 기운은 보이지 않는다. 나는 '움직여야 하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불안하다. 문민 정부가 들어선 이후 언론은 더욱 대중 추수적이고 전체주의적으로 흐르고 있는데, 막상 새롭게 나설 것 같던, 그 동안 틈새에 끼어 숨죽이고 있던 젊은이들이나

여성들은 보이지 않는다. 한결같은 무표정으로 자신들을 감추고 있다는 느낌이다. 그러한 느낌을 나는 교실 상황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느낀다.

10년 전 '여성 해방'에 대한 강의를 할 때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여학생들이었다. 여학생들은 매우 진지했고, '봉건적인' 남학생들이 강의를 따라오지 못해 헛소리할 때 한심해 하면서 모르면 가만있으라고 야단을 쳤다. 10년이 지난 지금 남학생들이 '여성학' 강의를 더 많이 듣고, 교실에서 질문을 더 많이 하고, 실제로 강의 내용을 더 많이 흡수해 가는 느낌이다. 사람들은 피해자라고 인식하게 되면 자신의 손상된 이미지를 벗고 보다 적극적으로 삶을 대하게 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이 더욱 적극적이 되어야 할 텐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내 강의 내용과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그 동안 주춤거리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게 되어 해방감을 느끼고, 주변부에 속해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면서, 한껏 기를 펴나가리라는 예상과는 달리 여전히 주춤거리는 여학생들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느낌이 실은 '문화 이론'을 강의하면서 느끼는 것과 같은 종류의 것임을 알게 된 것은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였다. '문화 이론' 강의를 학생들은 소화해 내지 못한다. 유물론적인 생각에 젖어서, 또는 현상학적인 명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감을 잡지 못한다는 식으로 고상하게 표현할 수도 있으나, 딱히 그런 것만도 아니다. 현상학적인 명제를 나름대로 갖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대부분이 자기가 선 '자리'에 대한 파악이 잘되지 않았다. 이것은 자신의 삶을 전체 사회의 흐름 속에서 파악하고 읽어 내는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과도 연관되는 문제이다. 그래서 '깨달음'이 새로운 관점으로 이어지지도, 새로운 '주체적 자아'를 만드는 것으로 연결되지도 못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신식민/반봉건/국가 독점 자본주의' 사회라는 깨달음은 그 동안의 변혁적 사회 운동의 와중에서 상당히 폭넓게 퍼졌다. 그러나 그 이후 그러한 논의들은 '피해자'로서 자기를 규정하는 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곧 '피해자'로서의 정체성을 '미화'시키기에 바빴을 뿐, 그러한 피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방법을 찾는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다.

나는 이 두 가지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그 동안 '경험을 통해 배우는 법'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자신의 경험을 거리를 두고 성찰해 보는가? 그러한 성찰을 위한 언어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즉각적인/피상적인/상투적인 경험만을 인지하며, 그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가? '뿌리 없음', '자아/주체 없음', '말없음'의 상태 속에 우리는 너무나 적응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신의 '주변성'을 변혁의 잠재성으로 돌려 가기 위해 어떤 과정이 더 필요한 것인가? 새로운 인식을 할 수 있는 주변적 '지점'은 가졌는데, 그 지점을 어떻게 창조의 공간 곧 '거점'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다시 주변

'여성'은 항상 역사의 '주변'에서 '타자화'된 존재로 살아왔다. 이들은 근대 이후 자신의 주변성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끈질기게 벌여 왔으며, 그들의 자각적인 움직임은 최근 현대사에서 가장 근원적인 변화를 추동해온 운동 중 하나였다. 근대 초기 여성 운동은 중심부에 끼여들기 위한 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만인 평등 이념에 기반하여 참정권 운동을 벌였고, 그 후로 사회 경제적 권리를 얻기 위하여 고용 평등을 위시한 권리 신장 운동을 벌였다. 여성들은 '권력자 남성'(이때 '남성'은 '식민 통치자'처럼 집단적 상징이다)에 정면 도전하면서 기득권을 나누어 갖자고 요구하고 나섰다. 시몬느 보부아르는 이런 움직임을 이론화해 내고 실천한 가장 대표적인 작가일 것이다. 이 당시 여성 운동가들은 남성과 여성이 실제로 기성 문화가 말하는 것처럼 차이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성차는 없다. 해부학이 운명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어느 영역에서건 기회가 균등히 주어질 것을 요구했다. 다른 많은 해방 운동이 그러했듯이 여성 운동도 지배 집단의 강한 반동적 힘과 맞부딪치면서 장기전에 들어가게 된다. 운동의 경험이 축적되던 어느 정도 힘을 지니게 되면서 여성들은 남성이라는 '보편적 자아'에 의해 규정된 여성의 '타자화'된 자아가 남성 세계에 길들여진 언어를 계속 사용하면서 어떻게 '해방'을 이루어낼 수 있을 지에 대해 고심하게 된다. '중심'을 선망하면서 공격해 들어가는 전략이 오히려 달려들어 가는 결과를 초래하는 현실을 보면서 여성운동가들은 전략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것은 '남성성'에 기초해서 엮여진 '보편적 자아'가 만들어 놓은 틀 밖에, 또는 그 틀의 경계에 새로운 공간을 창출해내는 전략이다. '적'을 정면으로 치는 일에 전력하기보다 주변인 자신들의 '자존'을 회복하고 자생력을 기르는 일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다. 버지니아 울프는 이 방향에서 '여성성'을 인지한 작가로서, 더 이상 끼여들기에 연연하지 않는 여성 언어를 만들어 간 선구자에 속한다.

이제 이들에게 있어서 자신이 가진 주변성은 더 이상 '중심'과 위계 서열적으로 대립하는 이분법적 관계에 있지 않다. 그 '주변성'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이루어낼 전략적 고지로 변한다. '주변성'을 더 이상 결핍이나 열등성으로 간주하지 않는 시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자신의 주변성을 새로운 일으킬 잠재력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여성들은 더 이상 "남녀는 생물학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차이가 없다"는 말을 하지 않게 된다. 오히려 중심의 존재와 주변부에 있는 존재들 사이에는 오래된 삶의 체험에서 오는 차이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기 시작한다. 새로운 침고 싶어하는 주변인들, '자각한' 여성들은 '중심부'에 들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면서 이제 그 차이를 강조하게 된다.

'주변'의 시선을 갖게 된 여성 운동가들은 이제 자신 속의 힘을 느끼기 시작한다. 사회를 심각한 위기 상황에 몰아넣는 '중심부'의 성격을 알아 가기 시작한다. 도구적 합리성과 과학 기술주의, 물질과 무력에 바탕을 둔 제국주의적, 군국주의적, 가부장적, 위계 서열적 실천의 역사를 다시 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지 않은 존재로서의 잠재력을 새롭게 느끼기 시작한다. 이들은 여성과 남성이 분리된 세계에서 살아오면서 내면

화시력은 다름, 곧 사유의 차이만이 아니라 감성과 무의식과 습관상의 차이까지도 논의의 장으로 끌어낸다. 하당은 서구의 남성들은 여성에 비해 일반적으로 '전유하려 하고, 지도·주도하려 하며, 판단·규정하고 일을 처리해 버리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서구 사회의 '중심부'에 들 여러 조건을 갖춘 '백인, 경제적으로 기득권을 누리는, 프로테스탄트 문화의, 배타적인 이성애 관계에 길들여진 남자' 경우에 더욱 그런 성향이 강하다고 한다.

사회의 경향에서건 일상 생활 면에서건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은 기존 질서에 길들여져 있어 변화의 끈을 찾아내기가 어렵다. 한국 사회의 남성 문화를 예로 들어보면, 대부분의 남성들은 핏거리와 인맥주의, 술 문화 중심의 남성 문화에 너무 깊숙이 젖어 있어서 그것의 문제성에 둔감해 있거나, 그런 것을 매우 싫어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을 거부하지 못하는 인간 관계망에 이미 깊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기가 힘들다. 따라서 남성이 현실성 있는 변화 이론을 내거나 행동을 하기는 그만큼 어렵다. 남성이 기존의 남성 지배문화와 무관하게 지내려면 기존의 관계망을 끊고 새로운 근거 집단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남성적인 중심부 논리에 따른 관계망을 아예 갖고 있지 않기에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하기만 하면 되는 여성에 비해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함을 의미한다. 일상적 삶의 자질구래한 것들이 실제로 사람의 기운을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이 점은 결코 만만찮은 변수이다. 그 동안 누려온 많은 기득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일상적인 불편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변화를 이루어 내기 위해 더 많은 용기가 필요한 데 비해 여성들은 중심부로 향한 시선을 거둘 수만 있다면, 그 동안 주변부에 살아왔기 때문에 가지게 된 잠재된 의식이나 덜 오염된 눈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 남성에 비해 여성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갈 체험적 근거를 자신 속에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가부장제 속에서 변화를 추구할 때 가지게 되는 이러한 여성의 잠재성은 서구 제국주의의 주체가 오염시켜온 현 문명을 변화시켜 가는 데 주변부인 식민지 주민이 지니는 잠재성과 같은 성격의 것이다.

지식 생산의 목표가 체제 유지가 아니라 기존 사회의 문제 해결에 놓일 때, 주변부에서 입지/태도/감성은 그런 목표에 맞는 지식을 생산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적 자원이 된다. 하당이 지적한 대로 '반역'의 정체성에서 오는 경험과 정서와 시각이 있어야 비판적이고 성찰적인 지식을 소화하고 또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주변적 지식인'이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지식인은 변경에 선 사람이지만 중심부에 정착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변성에 대한 인식은 자신을 새롭게 보게 된다는 면에서만 아니라, '중심부'를 재규정하고 따라서 틀 자체를 바꾸어갈 주요 지점이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주변인'들이 자기의 '주변성'을 인정하게 되기는 실제로 매우 어렵다. 식민지 엘리트들이 멀리 있는 '중심'에 필사적으로 매달려 왔듯이, 주변에 있는 여성들도 그나마 자신들에게 부여된 조그마한 '중심'을 놓치게 될까봐 늘 불안해하면서 더욱 극성스럽게 그 '중심'을 지키려고 해왔다. 주변에 있을수록 '중심'의 것이 대단해 보이고 그래서 그것의

결핍을 아쉬워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아들을 더 선호하고 가부장제에 집착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 될 부분이다.

똑같이 '주변'에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주변성'을 전혀 느끼지 않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중심'의 말을 어떤 '중심부의 인물'보다 완벽하게 하도록 훈련을 받고 또 스스로를 훈련시킨 주변인을 생각해볼 수 있다. 어떤 면에서 '밖'에서 영입된 경우, '중심'에 들고자 하는 열망이 좀더 강하고 중심부의 언어를 곧이 곧대로 배웠을 가능성이 높다. 아예 중심부에 있어 온 사람은 그것의 변형과 그 것의 이면에 있는 비공식적 언어도 익히며 살아왔을 것이지만, 새로 영입된 사람은 그런 경험이 없는 데다가, 또 자신의 불안한 위치 때문에 더욱 '중심'의 이념형적 언어에서 이탈하지 못한다. 주변인 출신으로 '중심'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늘 가장 '중심'의 규칙에 충실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영국에서 종종 들게 되는 농담으로 "영국 의회에는 단 한 명의 남자가 있는데 그는 마가렛 대처 여사다"는 말이 있는데, 이 농담이 바로 그런 존재를 상상해 보게 한다. 마치 식민지 지식인이 식민 모국이 내건 유형의 인간형에 맞추기 위해 가장 피나는 노력을 하듯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이론적인 '전형'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 운동은 바로 자신의 '주변성'을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하는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이때 주변성은 엄밀히 말해 단순히 '바깥'의 자리가 아니다. 그것은 '변두리'라는 의미를 더 많이 갖고 있다.

실제로 자신의 '주변성'을 전략적 공간으로 활용하게 되는 경우를 보면 완전한 격리나 소외 상태에 있는 사람들보다 상당히 '중심부'에 가까이 있던 이들이 많다. 절대적으로 타자화된 경우는 자신의 '결핍'을 오히려 느끼기 어려우며, 동시에 변혁을 이뤄내 가고자 하는 에너지도 별로 갖고 있지 못하다.

하당은 이런 입장을 '안에 있는 외부인'이라는 단어로 개념화한다. 이 '외부인'들은 자신의 '결핍'을 상대적 결핍으로 느낄 수 있으면서 그 '결핍'을 보충하려고 들지 않는, 오히려 바로 그 경계선에 섬으로써 얻게 되는 전략적 시선의 장점에 주목하는 사람들이다. 자기 목소리를 갖으려는 주변인들은 나름대로 자원과 '전략'을 확보해야 한다.

최근에 여성 운동에서 '정체성의 정치학'과 '차이의 정치학'이 제기되는 것은 그만큼 여성 운동이 독자적 힘을 갖게 되었음을 뜻한다.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 남성의 눈치를 살피는 것은 그만큼 여성 운동의 토대가 허약하다는 뜻이다. 우리들의 목소리는 아직도 너무 획일적이고 위계 서열화 되어 있는 담론 구조 속에서 '먹히' 버리고 있다. 새로운 목소리가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전혀 열어 가지 못하고 있다.

자신이 지닌 '주변성'에서 전체를 보게 되고 거기서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찾게 되면, 그 주변성은 아주 새로운 정치적 공간을 열어갈 '강력한' 거점이다. 예를 들면 여성들이 그 동안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라고 거부해 온 '모성'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면서 스스로를 '모성'이라는 개념으로 규정하기로 할 때, 그들이 말하는 내용은 그 동안 단호하게 거부해 온 가부장제의 그것과 매우 흡사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새로운 정치적 공간이 만들어지는 상황에서는 같은 내용이 전혀 다른 것을 의미하게 된다. "모성은 아름답다"는 말을

가부장적인 사람이 하였을 때와 여성 해방 운동가가 하였을 때 매우 다른 정치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마찬가지로 "흑인과 백인은 다르다", 또는 "서양 사람과 동양 사람은 다르다"는 말을 누가 했는지에 따라 그 말의 의미는 매우 달라진다.

이때 말의 내용보다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또 듣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해지는 것은 바로 그 말하는 사람이 선 '자리'가 갖는 정치성 때문이다. 그 '주변'의 자리가 최소한의 힘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숨겨진 초자아에 의해서 익명의 다수에게 보이지 않게 강요되어 온 권력이나 지식의 기제 속에서 빠져 나오면, 담론의 생산자와 수용자의 권력 관계가 분명해짐으로써, 권위적 언설에 더 이상 흡수될 위험이 없어진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 주체적인 의사 공동체의 성격에 따라 매우 다른 뜻으로 전달되고, 변화를 위한 새로운 담론의 영역이 만들어진다. 억압당한 이들이 자신들의 삶의 공간에서 새로운 정치적 공간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새로운 관계와 의미가 생산되는 장이 열리는 것을 말한다. 이들은 타인의 억압과 언어적 현실에 대해 무지하고 무딘 삶을 잃어 내는 예민한 촉각을 길러갈 기회를 '구조적'으로 박탈당해온 '중심부'의 사람들을 가볍게 지나쳐 버리면서, 이제 '침묵의 공간'을 잃어 내기 시작한다. 억압된 존재의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음'의 상태를 드러내기 시작하고 그 것에서부터 새로운 질서를 표현해 낼 새로운 문법을 찾아 나서게 된다. 많은 것이 역전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잠시 삶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가지게 될 기회를 '구조적으로 박탈'당한다는 점에 대해 생각해 보자. 여성주의와 탈식민 담론의 언저리에서 실험적 영화 작업을 하고 트린 민하는 그의 책, 『여성, 원주민, 그리고 타자 Woman, Native, Others』라는 책에서 일본계 미국 여성 미츠크 야마다 Misuye Yamada가 쓴 시를 인용하고 있다. 함께 읽어 보자.

아빠가 들려준
일본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하듯
한 할아버지가
하룻밤을 묵을 집을 찾아
이 마을 저 마을 다다고 있었대
그러나 문을 두드리면
조금 열려다가
다시 바리곤 했지

더 이상 길가가 어려워진 할아버지는
언덕에 올라
자신 몸을 돌리며
빈 자리에 누웠대
아래 마을들은

별빛 같은 몇 개의 등을 빼고는
모두 잠들어 있었어
갑자기 그림이 갈라더니
보름달이 마을 너머로
그 환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겠어?

할아버지는 마을을 향해
일어나 앉아
이렇게 말했대요
마을 사람들이여
그때는
당신이 오늘밤
내가 지낼 방을 주지 않은
그 '잔잔함'이 아니었다면
이 보잘 것 없는 눈이
어떻게 이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 있었을까요?

이런 류의 시는 단지 '못 가진 자'의 자기 위로의 이야기일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기능을 해왔을 것이다. 또 그 할머니가 잔 곳이 추운 비바람이 몰아치는 자리였다면 어땠을까? 이제까지 '주변'에 있었던 이들은 모두 '추운 비바람'이 몰아치는 언덕 위에서 자신을 찾아낸 불친절한 마을 사람들에게 '이를 갈면서' 밤을 지냈다. 실제로 그 언덕 위의 자리가 상당히 아늑하고 새로운 아름다움을 줄 수 있는 자리였다 해도 보지 않으면서 원망과 자기 비하 속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다. '주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으려 할 때는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만 보인다. 그러나 일단 그 자리를 인정하면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

자신의 '자리'를 전체 속에서 확인하고 그 자리를 더 이상 '주변'으로만 규정하지 않기로 한 주변인들은 자신의 경험과 시각을 아주 새롭게 재구성하는 일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항상 '중심부'인 남편이 자신의 생일을 기억해 주는지 잊어버렸는지에 따라 자신의 존재 가치를 가능하던 여성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생일 상을 차렸다고 상상해 보라. 이 행위는 자신이 이제 더 이상 남편의 사랑과 관심의 정도에 따라 움직이지 않을 것이며, 바로 자신으로부터 삶을 시작하겠다는 단호한 '변신'의 선언이다.

일단 자기의 주변부를 인정하게 되면 그는 '중심부'의 관심을 끌거나 그 곳에 진입하는 것에 에너지를 쏟지 않게 된다. 그는 자신의 삶의 장을 '만드는' 데 주력하게 되며, 필

연적으로 자신을 억압해온 중심을 해체하고 대신 전혀 다른 '중심' -그들이 거부하는 중심-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중심이며, 그 중심은 다중적인 형태일 것이다 -을 만들어 가는 데 힘쓰게 될 것이다. 여성들은 자신들의 활동 영역을 '개인적인'/'비사회적'인 것으로 따로 떼어 둘으로써 변화를 이루어 내기 힘들게 했던 기제를 보게 되고 지방 주민들은 자신들의 활동을 '국지적/보편성이 결여된'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스스로의 활동의 장을 비하시켜 온 논리를 보게 된다. 그래서 여성 운동에서는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방 주민들은 '가장 구체적인 것이 보편적인 것이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자신들의 사적 체험을 '사회적'인 영역으로 끌어내고자 한다.

여성 해방 운동가들은 다른 어떤 변혁 지향적 운동에서보다 억압된 자들의 체험과 그 체험을 풀어 내는 말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또 강조해 왔다. 그리고 주변부에서 만들어낸 그러한 언어가 '중심부'의 언어를 해체하면서 사회 전체를 새롭게 파악하고 진단해 내는 치유의 언어가 되리라고 믿어 왔다. 그러나 이들은 그 과정에서 파생될 또 다른 위험성을 보기 시작했는데, 곧 그 대안적 언어가 근본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이 되는 위험성이다. 여성 해방주의자들이 '차이의 정치학'에 뜻을 내리려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이다. 식민화된 대상은 늘 단일한 범주로 인지되고 그들의 다양성은 무시된다. 이제 여성사를 새로 쓰려는 마당에, 그러한 획일성은 마땅히 거부해야 한다. 폭스-제노 베즈의 표현대로 "여성사란 남자를 주체로 한 연대기와 같은 방식의, 여성 주체의 연대기를 재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 주체 중심의 역사적 과정에 드러나 있는 갈등과 모호함과 비극을 밝힘으로써 지배 담론/공식 역사에 도전하는 것이다." 탈식민 담론을 펴는 여성주의자들이 하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작업이며, 이때 이들은 '차이'를 강조하게 된다.

여성주의자들이 '차이의 정치학'이라는 개념을 통해 부각시키려는 것은 바로 삶의 다층성이다. 이들은 삶의 다층성을 어떻게 위계 서열적으로 배열하지 않고 인식해 갈 수 있을지의 문제를 놓고 고민한다. 혹시 '나의 주변성'이 또 다른 '중심부'가 되어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는 주변을 억압하지는 않는가? 우리 내부에서 발견되는 차이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조정해 가야 할 것인가? 이들은 이러한 질문을 묻기 시작한다.

서구 여성 운동에서 차이성을 강조하게 된 배경에는 실제로 이질적 집단들이 공존하는 서구 사회의 특성이 작용해 왔다. 일상적 삶 속에 편재해 있는 권력의 작용에 주목해온 여성들은 각자의 위치에 따라 억압의 모양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다. 백인과 흑인, 그리고 제3세계 여성들간의 연대를 이루어 보려고 노력해온 서양의 백인 여성 해방 운동가들은 소수 집단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자체 내 차이를 인정해 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한 자신들의 목소리는 하나의 목소리에 지나지 않으며,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만 자신들이 원하는 사회에 가까이 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여기에 하나의 에피소드를 소개한다. 여성 운동은 인종 차별을 극복해 낼 수 있을지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에서 한 백인 여성이 자신들은 여성이라는 사실로 충분히 색깔의 차이를 뛰어넘어 하나로 묶일 수 있다고 주장했을 때 한 흑인 여자가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한다.

"아침에 거울에 당신 모습을 비춰 보면서 당신은 무얼 봅니까?"

"나는 한 여자를 봅니다."

백인 여자가 말했다.

"나는 한 흑인 여자를 봅니다."

흑인 여자가 응수했다.

"내게는 매일 매일 삶에서 인종이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당신에게는 그렇지 않겠지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결합이 언제나 어딘지 인위적이라는 느낌을 갖게 만드는 이유랍니다."

'차이의 정치학'을 강조하면서 여성 해방주의자들은 계속 질문을 던진다. 주변부의 통일된 목소리가 있는가? '주변부'의 단결은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일까? '여성 해방'을 위한 단일한 이론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묻게 되면서 이들은, 자신들의 억압이 '성'에만 국한되어 풀이 갈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된다. 여성만이 아닌 다른 '타자화'된 집단과도 연계성을 맺어 가는 근거와 필요성을 보게 된 것이다. 각자가 자신 속에 여러 가지 모순을 안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풀어 나가는 주체가 결국 그 자신이라면 그것들의 중층성은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들은 이제 '다층적 현실'을 읽어 내고 다양한 모순들이 서로 엮여 있는 양상을 드러내는 작업에 들어간다. 그들이 일시적으로 상호 모순적 관계를 지닐지라도 그 문제는 장기적으로 불릴 문제라는 믿음을 가지고 해체 작업으로 들어간다.

배고러운 논리와 텍스트의 완전 무결성이 전제되는 담론이 지니는 억압성을 드러내고, 여러 가지의 이야기가 쉽게 풀릴 수 있는 담론을 열어 가기, 현실을 완결지으려는 성급함을 접어 두고, 각자 자신이 선 자리에서 경험을 풀어 놓도록 분위기를 마련해 가는 것, 이것이 최근 페미니즘과 탈근대론이 공통적으로 내놓고 있는 변화를 위한 방법론이다. 그 동안 '대서사'를 독점해 온 하나의 막강한 세력이었던 단일한 '근대적 주체'가 해왔던 일, 곧 인과적 설명을 가하려는 집착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이들은 같은 메시지를 전한다.

그러나 페미니즘과 탈근대론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페미니즘은 '타자화'된 자리, 곧 새롭게 만들어갈 거점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반면, 탈근대론에서는 그런 토대가 미약하다. 탈근대론자들이 여전히 이론가의 자리를 지키고자 한다면 그들은 좀더 실천적인 거점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론을 위한 공허한 이론만 남겨두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내게는 많은 탈근대론자들의 논의가 여전히 이론가로 군림하면서 여성 운동이나 여타 사회 운동이 주변부에서 새로운 움직임을 만들어 가는 것만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바로 이 점에서 탈근대론자들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여성 운동에서 말하는 '주변부'의 단결은 이렇게 차이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더욱 드러냄으로써 이루어진다.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고 성찰해 내는 일에 익숙하지 못하다. 그래서 '중심부'로부터 '지령'이 '하달'될 것을 기다리면서 사회 운동을 하는

것을 더 편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더 이상 그런 식의 사회 운동은 지금과 같은 복잡한 모순적 상황을 풀어 나갈 수 없다. 개개인은 시작이 힘들더라도 우선 각자의 주변화된 상태에서 자신의 삶을 풀어 나가는 훈련을 해가야 한다.

여성문화 공간에 대한 남성문화의 침탈!

고대생에 의한 집단성폭력,

이대대동제에서,



오후 6시, 이대여성들은 이화광장 주변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고대생들이 이화광장 전체를 철거하고 원을 그리고 서 있는 것을 본다. 빨간 고무장갑과 호투라기들 든 몇몇 고대인의 '고대의 영원한 연인은 누구?'라는 합성과 함께 응원전이 시작되었다. 이때 이대여성들은 폐막제 중 가장 정대한 행사인 영산줄다리기를 위해 운동장으로 모인다. 해방이화, 시대유감을 외치며 한 바탕의 이화인의 축제들 즐기고 있는 순간, 고대생들은 줄을 이어 몰아쳐와KT고 이들을 붙세도 없이 그녀의 팔은 부러져 있고, 성폭력적 언행들을 당하고 있었다.

97년을 제외한 12년간 이대생들은 그들의 공간에서, 그들의 힘을 모아 준비한, 그들의 축제가 타 학교의 구성원 집단에 의해 풍비박산나는 광경을 지켜보아야만 했다. 그들은 물리적 약자로서 이러한 폭력을 물리적 힘을 통해 막아낼 수 없었고 막연히 지켜 보아야만 했던 것이다.

이러한 난동에 대한 정당화의 한 방편으로 그간 고대에서는 하나의 전통론이 내려오고 있다. 군부독재 시절 상업주의에 물든 이대의 쌍쌍파티를 불의에 참지 못하는 고대생들이 저지하려 한 행동이 12년의 전통으로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쌍쌍파티는 82년에 이대에서 자체적으로 폐지되었으며, 고대생 난동이 시작된 해가 85년이라는 객관적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근거없는 변명임이 확연히 드러난다.

96년 고대생난동의 성격규정에 대한 다양한 여정속에 고대생들의 12년간의 폭력이 비로소 집단적 성폭력이라는 개념으로 재규정되기 시작했다. 5월이 되면 누구보다도 언론이 이를 주목하는 현재에 이런 고대생들의 집단적 폭력의 행사를 어느 누구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 난동이 왜 하필 '강간'이라는 이미지를 불러 일으키는 성폭력으로 규정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반발이 무성할 뿐이다. 여기서 우리가 이대대동제에서의 고대생난동을 집단

적 성폭력으로 규정하는 몇가지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성폭력에 대한 편협한 개념규정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성폭력은 단순한 강간, 강제추행, 동의 신체적 폭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성폭력은 생물학적 성(sex), 사회적으로 규정된 성(gender)에 가하는 동의되지 않은 가시적, 비가시적 폭력의 행사인 것이다.

예를 들어, 남학우가 술자리에서 '한잔 따라봐'하는 것은 성폭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술은 뭘니뭘니해도 여자가 따라야 제맛이야'라는 식으로 성별을 강조하면서 추근거리고 불쾌감을 유발했고, 그 여학우 또한 이에 대해 불쾌감을 말하고 그만둘 것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이 계속되었다면 이는 분명한 성폭력이 되는 것이다.

위의 재규정된 성폭력의 개념을 바탕으로 고대생 난동의 발현형태를 살펴보면, 고대생들은 이대에서 집단적으로 동의되지 않은 응원전을 진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몇몇 학우들은 성폭력적 언행을 경험하였고 심한 경우 신체의 손상까지 입었다. 또한 분명히 이대생집단은 이에 대해 항의하였으며 그들의 불쾌감을 표시하였다. 따라서 이는 사회적 성에 대한 성폭력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이대라는 문화공간과 고대라는 문화공간의 상징적 의미의 문제이다. 이대라는 공간은 여성들이 구성원으로 모여, 여성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창출해내는 한국사회 여성들의 공간을 대표한다. 이에 상응하여 고대라는 공간은 사회적으로 남성문화의 성격이 짙은 공간으로 대변된다. 이러한 고대의 남성중심적 문화는 단순히 고대라는 공간을 차지하는 남성들의 비율이 높기 때문만이 아니라 사발식과 응원문화등의 실물적인 기제를 통해 강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여기서 우리는 고대생난동이 왜 이대라는 특수한 공간을 지목하여 나타나며, 왜 집단적인 성격을 띠는지를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이대의 문화적 특수성은 현 가부장적 사회에서 다양한 남성문화의 침범을 불러온다. 모대학이 이대에 성폭력적 언사를 포함한 미팅제안 엽서를 보낸사건이 이대에서 성폭력의 문제로 불거진 적이 있었다. 고대생 난동이라는 사건 또한 단순한 고대와 이대의 문제가 아닌, 많은 이대생들이 다양한게 경험하고 있는 집단적 성폭력의 한 양태이다. 그러나 고대생난동 사건이 특수하고 심각하게 다루어지는 이유는 위에서 말해진 엽서사건 보다 그 수위가 심각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난동이 지속적이고 의도적이며, 조직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이다. 위에 제시한 상징적 의미에 근거하여 고대생 난동을 해석할 때, 이를 남성집단에 의한 여성집단에 대한 집단적 성폭력이라는 개념규정의 하나의 근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다.

위에서 말해진 두가지 논거에 의해 우리는 이대대동제에서의 고대생집단난동이 명백한 성폭

방을 불러올 것이다. 여기서 진단과 처방은 왜곡된 고대문화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지속적으로 재생산되는 고대문화는 남성중심적 집단성과 패권의식을 그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근본적으로 고대문화에 대한 문제제기 없이 고대생 집단난동이 근절 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대대동제에서의 고대생 난동 근절의 과정은 현상적인 난동의 근절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고대문화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와 새로운 대안마련의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폭력이 발생하는 영역의 확장문제.

--- 기간에는 이대후계에서 발생하는 고대생의 집단 성폭력이 이대교문 안을 둘러싼 공간에만 한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의 영역을 이대라는 공간을 둘러싼 이대주변의 공간까지를 포함하는 영역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근거1. 작년에 발생한 사건의 예.

작년의 경우, 이대공간 내에서 고대생들이 응원가를 부르지는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무리의 고대생 집단은 '이대후에서 축제를 방해하는 고대생의 집단적인 성폭력에 반대하는 내용으로 붙인 대자보에 "I will be back" 이라는 글자를 써 놓았습니다. 그리고 축제가 끝날 즈음에 이대 교문앞 거리에서 응원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이대 지킴이들이 2-30분간의 실랑이 끝에 멈추게 하였구요.

---작년에 발생한 이 사안에 대해 이대와 고대측은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4자 테이블에서 위의 상황까지 고려하지 않았기에, 이를 이대라는 공간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력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의 논의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안으로 이대학생처에서 고대학생처로 공문을 보냈으나, 실질적인 처벌이나 해결의 방법이 모색되지 못한채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 폭력의 영역은 이대 공간의 연장선상에 있는 모든 영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위 사안중 대자보에 쓴 위협적인 낙서 또한 폭력의 한 형태이며, 문제제기되어야 할것입니다.